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29 <http://www.cni.re.kr>

열린충남 2019 FALL Vol.88

충남연구원
CHUNG 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2019년 통권 88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1226-637X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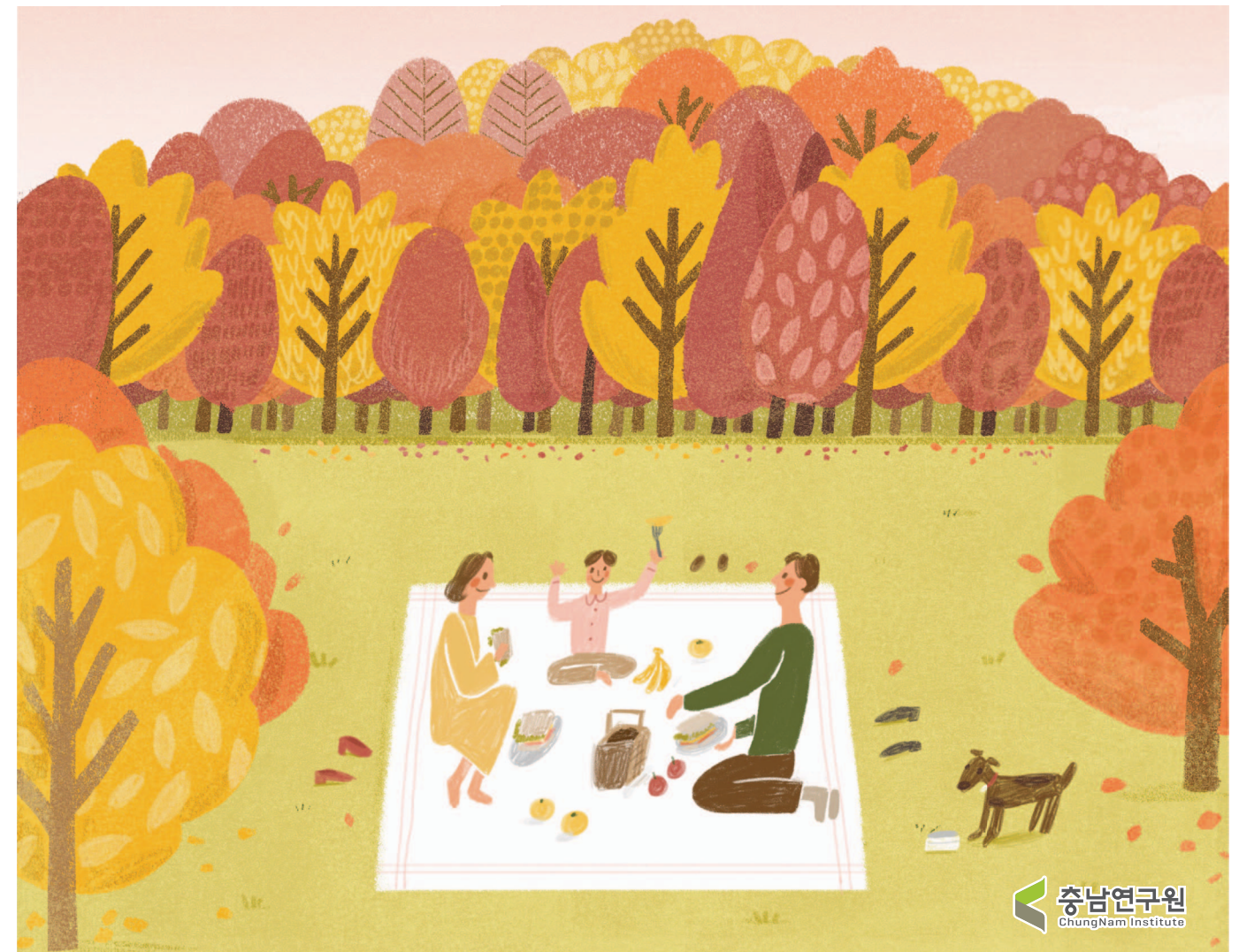
열린충남

2019 FALL
Vol.88

권두시
사랑해요, 충남

특집 | Homo Ludens_놀이하는 인간과 충남의 놀이문화
두레, 일과 놀이가 공존하다
호모 루덴스의 눈으로 바라본 여행
놀이문화와 충남관광

논단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와 입주 희망자 특성 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이인배
편집위원 오혜정, 오용준, 강미야, 여형범, 박해은, 홍종남
에디터 이민우, 이유나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이메일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iyayu77@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충남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대한민국을 넘어 新서해안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의 미래와 220만 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우리는 충남연구원입니다.

2019 FALL Vol.88

CONTENTS

04 권두시
사랑해요, 충남

06 특집 | Homo Ludens_놀이하는 인간과 충남의 놀이문화
1. 두레, 일과 놀이가 공존하다
2. 호모 루멘스의 눈으로 바라본 여행
3. 놀이문화와 충남관광

24 논단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와 입주 희망자 특성분석

32 충남의 섬
외딴 섬 등대지기 그리운 옹도

38 충남시장플러스
찬란한 백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주, 산성시장을 가다

44 열린충남人
충남의 마지막 독립운동가, 이일남 애국지사

46 열린마당
1. 농민 노동도 존중받는 사회
2. 충남 농업농촌의 지금과 미래의 농촌

56 해외리포트
방조제로 갇힌 서해안 하구의 복원 움직임,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에서 살펴본다

60 상생과협력
집단지성의 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64 인권 A to Z
인권이란?

70 오피니언
1. 충남의 대표 쌀을 만들자
2.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74 충남 소식

76 연구원 소식

78 답시

79 충남의 사계

卷頭詩

권두시

사랑해요,
충남

나태주 | 시인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광역 자치단체 이름들 가운데
충남처럼 예쁜 이름이 있을까요?
충남, 충남, 소리 내어 불러보면
입속이 다 푸르러지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저절로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금세 건장한 청년 한 사람
옆에 와 있는 것만 같군요.
맑은 이마를 가진 청년이에요.
선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에요.
건강한 숨소리를 지닌 청년이에요.
정의로운 심장을 지닌 청년이고요.

충남아, 충남아,
나직이 소리 내어 불러보면
네, 하고 대답이 와요.
역시 선한 목소리입니다.
역시 푸른 목소리입니다.
역시 건장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충남보다 자랑스런 인물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배출한 고장이 어디 있을까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리 없지만
안으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겉으로는 소리 없이 흘러가되
안으로는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가요.
그 불길 그 강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손 잡고 가요.
먼길도 같이 가면 가깝다 했고
힘든 일도 함께하면 쉽다 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꿔요.
내일의 밝은 세상을 믿어요.

내 사랑, 충남 사랑해요.
내 자랑, 충남 고마워요.
우리는 동지. 우리는 동행.
부디 우리 서로 지치지 말기로 해요.
끝까지 가서 웃는 얼굴로 만나요.
사랑해요, 충남.
고마워요, 충남.



01

특집1

두레, 일과 놀이가 공존하다

민정희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두레는 농번기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우리 조상들은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고자 두레라는 문화를 만들었고, 공동체 구성원의 일체감을 높이는 소중한 정신으로 발전시켰다. 두레는 ‘두레 논다’고 하거나 ‘두레굿 논다’고 하는데, 이는 두레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동시에 농민들이 풍물을 두드리고 노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곧 일속에 놀이, 놀이 속에 일의 양면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레는 해방 전까지 성행하였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제초제 보급,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전설이 되어 가고 있다. 풍물 또한 쇠퇴하면서 일부 가락만 살아남아 지역전통문화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공동 노동과 유리된 채 민속공연으로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 일과 놀이판의 중심되다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여기던 시대에 농기는 두레패를 대표한다. 흔히 농기는 용대기·용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농기는 자신의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동시에 풍농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기는 깃대, 깃발, 쟁장목 등으로 구성된다. 깃대는 주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5~8m 정도 된다. 깃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神竿)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깃발은 무명천을 이어서, 3m×2m 정도로 만든다. 마을에 따라 깃발에는 글씨나 그림으로 상징화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묵서한 것이다. 이를 줄여 천하대본(天下大本)이라고도 쓴다. 그리고 농사짓는 방법을 처음 가르쳤다는 고대 중국의 신농씨의 유업이라는 뜻으로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하거나 「맹자」에 나오는 구절로 신농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위신농지언자(爲神農之言者) 라고 쓰기도 한다.

농기에는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생동감 있게 용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도 많다. 용은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닌다고 관념되어 왔다. 곧 물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수신(水神)인 용을 묘사하여 농사에서 비를 순조롭게 내리게 하여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특
집

Homo Ludens_ 놀이하는 인간과 충남의 놀이문화

- 01 두레, 일과 놀이가 공존하다
- 02 호모 루덴스의 눈으로 바라본 여행
- 03 놀이문화와 충남관광

기원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외에도 깃발의 한 편에는 마을 이름과 제작연도를 표시해두기도 한다. 제작 연도는 두레패의 서열을 가리는 근거가 되었다. 깃 폭의 테두리에 지네발이라고 하여 너슬너슬하게 오려 붙인 삼각형 모양의 형값을 붙였다.

기의 맨 위에는 썩의 썩지깃을 모아 묶은 썩장목을 대나무 빈 통 속에 꽂았다. 그리고 썩장목 아래에는 침을 벗긴 총을치로 묶어 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껏 멋을 부렸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서 새의 깃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앞서 깃대가 신간(神竿)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썩장목 역시 이러한 상징성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상징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두레싸움을 할 때 썩장목을 빼앗는 것으로 승패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닐까한다.

농기는 무겁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이 허리에 띠를 매고, 기 끝을 허리 띠에 받쳐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세 개의 새끼줄을 늘여서 농기를 땅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한편 농기에 대해서는 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두레패가 들에 일하러 나갔을 때, 논에서 이동할 때, 다른 두레패를 만나면 반드시 약자는 강자의 농기에 인사를 하였다. 인사는 썩과리를 치면서 깃대를 약간 뉘여 두어 번 쓸고 다시 올리는 방식이다.

용대기(1824년 제작 추정)
1974년 8월 31일에 충남 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되었다.
규모 가로 3.2m, 세로 2.1m이다.



서산 장동에서는 두레를 조직하여 벼농사를 마을공동으로 협업하였다. 6월 초가 되면 논에 풀이 나기 시작한다. 이때가 되면 마을회의를 통해 두레를 조직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촌 말 공회당에 모여 회의를 한다. 이때 두레 일을 할 구성원을 선출하며, 일의 순서 등도 정한다. 마을에서 여자들을 제외하고 집집마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나온다. 한 집에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올 수 있으면 모두 나와서 일을 한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두레 먹는 날 계산을 하여 돈을 치른다. 장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면 40~50명 정도 되었다.

두레 조직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먼저 농사 경험이 풍부한 마을 어른 중에서 한 분을 영좌로 뽑는다. 영좌는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두레일을 전반적으로 지시한다. 공원은 실질적인 농사일을 돌보는 사람이다. 논공원과 밭공원으로 나뉘며, 먼저 논공원은 토양의 질, 잡초의 다과(多寡) 등을 살펴서 품삯을 정한다. 또한 두레패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짐작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밭공원은 두레 일을 할 때 식사와 참을 준비한다.

농민들
두레를 조직하다

모내기
(사진, 충남무형문화재 제20호 결성농요보존회)



50여 명 이상 식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에게 맡긴다.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식사와 참을 제공하는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역할이다. 총각대방(소임)은 두레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을 담당하며, 엄격한 규율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간혹 두레꾼들 가운데 일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벌을 주었다. 식화주는 밭공원을 도와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썩배는 정식의 두레 일꾼은 아니지만, 화롯불을 들고 다니거나 두레원들의 잔심부름을 한다. 품삯을 계산할 때에 일꾼보다는 적은 비용을 받는다.

두레 일꾼들은 공동 작업을 하거나 다른 논으로 이동할 때 악기를 연주한다. 마을에 따라 맡은 악기나 여러 기물에 따라서 그 역할이 정해진다. 풍물패를 총지휘하는 상쇠, 징잡이 징수, 고수, 무동, 법고, 상모를 돌리는 돌무, 날날이 또는 새납을 부르는 호적 등이 있다.

농민들
함께 일하며 놀다

서산 장동에서 모내기는 하지를 중심으로 2~3일 전후에 시작된다. 모를 심고 10일정도 지나면 김매기를 하였다. 김매기는 도사리·아시매기·두벌매기·만물 네 번을 한다. 김매기는 두레를 조직하여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도사리는 손으로 모 사이에 난 잡풀을 제거한다. 도사리가 끝나면 열흘 간격으로 아시매기와 두벌매기를 한다. 아시매기와 두벌매기는 호미를 가지고 모와 모 사이의 사각형이 되는 곳을 파 잡풀을 뒤엎는다. 만물은 두벌매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한다. 만물 때는 도사리 때와 같이 손으로 잡풀을 제거한다.

두레는 일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 결성하면 닻새에서 이레 정도 일을 한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부터(7시) 느티나무 앞으로 모인다. 먼저 나온 일꾼들은 공회당 앞에서 풍물을 치면서 마을 사람들을 기다린다. 이때 풍물패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꼬랑장단’을 치며 흥을 돋운다. 사람들이 모이면 마당 한쪽 옆에 용대기를 세우고 고사를 지낸다. 기고사는 두레 일을 시작하는 첫날 지낸다.

두레패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서 풍물을 치며 논으로 향한다. 두레원이 다 모여서 일터로 나갈 때는 ‘날당장단’을 친다. 날당은 ‘쟁메쟁 쟁메쟁 쟁메 쟁메 쟁메쟁 쟁 쟁메쟁쟁’하는 장단이 기본이다. 두레패 제일 앞에는 용대기가 서고, 그 뒤로 영기-썩맥이[썩과리]-징-장고-북-법고쟁이-역원(力員) 순으로 선다. 역원들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도랭이[도롱이]와 호미를 들고 논으로 나간다. 도랭이는 띠뿔로 만들어서 비에 젖어도 가볍고, 통퐁이 잘되어 여름철에 매우 유용하다. 한 번 만든 것은 대개 3년은 입을 수 있는데 보관만 잘하면 그 이상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논둑에 벗어 놓았다가 비가 내리면 쓰고 일을 한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 일을 중단하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맞으면서 서둘러 일을 한다.



아시매기
(사진, 충남무형문화재 제20호 결성농요보존회)

한편 용대기는 큰 논 주변의 눈에 띄는 논둑에 세워둔다. 풍물패가 논으로 들어가 한바탕 놓고 나 오면 뒤따라 일꾼들이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하루 일의 양에 따라서 일이 적을 때는 풍물패가 논둑에서 계속 풍물을 치기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악기를 논둑에 놓고 일을 거들기도 한다. 이때 풍물패는 악기를 내려놓고 함께 일을 하며 북을 든 사람 한 명만 들어간다. 북수는 북을 어깨에 메고 한 손으로 친다. 북을 치면서 흥을 돋우고 선소리를 하면 일꾼들이 소리를 받아 준다. 특히 만물 때 논매기 소리는 ‘얼카댕이’란 구음을 후렴으로 하면서 선창에 맞추어 부르는 방식이었다.

얼카댕이 얼카댕이

얼거차 달거차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네

얼카댕이 얼카댕이

(주강현 채록, 1986년)

어허어하 어이어하 어허으하

얼카댕이 얼카댕이 어하어하 얼카댕이

뎡이여 반아라 얼카댕이 얼카댕이 얼카댕이 얼카댕이

솟아랭이이다 얼카댕이 얼카댕이

(최운식 채록, 1991년)

한편 작업이 느슨해지고 졸음이 올 때 속도를 내기 위해 ‘장풍물가락’을 쳤다. 이때는 풍물패가 모두 악기를 들고 논두렁으로 들어가서 신명나게 풍물을 친다.

논에서 일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논둑이나 넓은 곳에서 한 바탕 놀이판이 벌어진다. 무동·뽕고·돌무·호적 등이 함께 풍물을 친다. 이때는 풍물가락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명나는 대로 풍물을 치며, 춤도 추었다. 또한 일꾼들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는 용대기를 옮기지 않지만, 멀리 가는 경우에는 용대기를 가지고 간다.

일하는 도중에 참은 오전 10시 반과 오후 4시 경 두 차례 제공된다. 술과 함께 국수나 수제비, 밥 등이 곁들여 졌다. 참을 먹고 잠시 쉬면서도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흥을 돋우며 노동의 피로를 이겨냈다. 점심은 1시 이후에 먹는다. 쌀이 귀했기 때문에 주로 보리밥에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다.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반죽밥’이라고 하여 쌀과 보리를 반씩 섞어서 대접했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는다. 일터에서 들어올 때는 길군악(길군애비)으로 ‘들땅’을 쳤다. 들땅은 보통 날땅장단을 무척 빠르게 치는데, ‘깡메 게깡메 게깡 / 깡메 게깡메 게깡 / 깡메 게깡메 게깡’하는 장단이다.

놀이, 지친 심신을 달래다

두레패는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공회당에 다시 모여 풍물을 치고 놀았다. 이때는 남녀노소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구경을 했다. 이러한 풍물은 일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단합과 아이들에게 풍물을 전수하는 ‘배움의 장’이기도 했다.

두레일을 마치면 보통 칠석 즈음이 되는데 이날 두레 품삯을 계산한다. 힘든 농사일이 어느 정도 갈무리 된 시점으로 일꾼들 모두 술과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기에 ‘두레 잔치’, ‘두레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두레 품삯은 논 한 마지기를 단위로 계산을 한다. 품삯의 일부를 꺾어서 잔치 비용과 사물을 고치거나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두레 먹는 날은 아침부터 모여서 풍물을 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간 노고를 달랜다. 이날 음식은 밥공원이 준비하는데 돼지 등을 잡는다. 술·밥·미역국·밀국수·수제비·김치·전 등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먹는다. 두레 잔치가 끝나면 용대기와 풍물은 마을 회관에 잘 보관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이처럼 두레는 일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일을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풍물가락을 올렸고 일의 동작에 맞는 농요를 불렀다. 한편으로 이것은 일에서 오는 피로를 경감시키고 신명을 돋구어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했다.



용대기와 두레풍장
 (사진, 충남무형문화재 제20호 결성농요, 황현만)

02

특집2

호모 루덴스의 눈으로 바라본 여행

채지형 | 작가

“요즘 뭐 하고 놀아?”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 ‘인생은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 대신 어떻게 노느냐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시대다. ‘놀이’가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옛이야기다. 아이들의 놀이만큼 어른들의 놀이가 중요해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놀이’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늘어난 수명과 이른 은퇴는 넘치는 시간을 선물했지만, 노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선물은 재앙이 되기도 한다. ‘잘 노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에 이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21세기는 놀이하는 사람의 시대

1인당 국민총생산 3만 달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걷는 이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는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경쟁에, 마음 둘 데가 없다. 잠시 멈춤, 일상에서 벗어난 틈, 틈을 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절실하다.

과거에는 ‘논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산업사회에서 일은 언제나 놀이에 우선이었다. ‘놀이’가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간답게 사는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같은 신조어들은 놀이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연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여행



미디어 전문가 마셜 맥루한은 ‘놀이가 없는 사회나 인간은 좀비 상태’라고 말했다. 놀이는 남이 주인인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세상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완전한 몰입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경험을 쉽게 누릴 수 있다. <놀이하는 인간>의 저자 노르베르트 볼츠는 “19세기까지는 생산자의 시대였고 20세기가 소비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놀이하는 사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놀이, 인간 문화의 기원

네덜란드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의 중요성을 이미 80년 전 간파했다. 1938년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한 책 <호모 루덴스>에서 그는 모든 문화의 기원을 놀이에

서 찾았다.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란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행동 혹은 몰입 행위로,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놀이는 놀이 자체에 목적이 있고 놀이의 규칙 안에서는 주체성과 상상력, 자유를 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다.

프랑스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도 빠질 수 없다. 그는 하위징아 이론을 확대 발전시켰다. 20세기 최고의 놀이학자라고도 불리는 로제 카이와는 저서 <놀이와 인간>을 통해 놀이를 미미크리(Mimicry)와 아곤(Agon), 알레아(Alea), 일링크스(Ilinx)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미미크리는 역할 놀이로, 누군가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놀이를 의미한다. 어린 시절 즐기던 소꿉놀이나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같은 옷을 입는 코스튬 플레이 같은 놀이다. 아곤은 경쟁에 대한 그리스어로 시합이나 경기를 뜻하고, 라틴어로 주사위 놀이를 뜻하는 알레아는 운에 맡기는 성향을 의미한다. 우연적인 사건이 놀이의 재미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스어로 소용돌이를 뜻하는 일링크스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놀이로, 무아지경의 상태를 일으키는 놀이의 성격을 뜻한다. 놀이는 여러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며 발전해왔다.

축제에서 신나게 몰입을 즐기는 여행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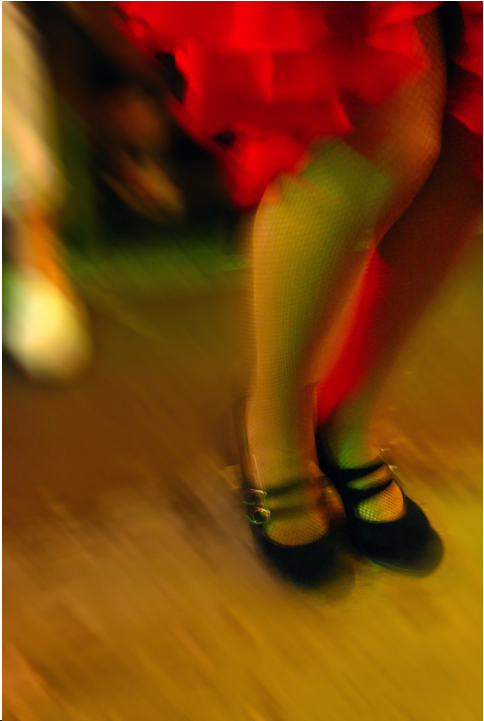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 공간에서 돌멩이와 꽃과 풀, 나무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노는 일만으로 생명과 인간의 연대를 깨달았다. 강강술래나 가마싸움 등 놀이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전통 놀이는 기본적으로 주체성과 평등성, 대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놀이문화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 직접적인 대면 대신, 디지털 속 누군지 모르는 이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놀잇감과 놀이방식 모두 파격적으로 달라졌다.

현대의 놀이는 손끝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는 놀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드론과 360도 카메라 등 새로운 기기들이 나타나면서, 놀이는 미디어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디지털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날로그에서 즐기는 놀이는 사라지고 있다.

자연에서 디지털로,
놀이 환경의 변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놀이,
여행

놀이문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형성된 오늘날, 과거 놀이의 성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행위가 여행이다. 여행을 떠나면,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우연성에 기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헤쳐 나가야한다.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삶을 추진하는 모험심을 품고, 몰입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난다. 여기에 놀이로서의 여행의 묘미가 숨어있다. 로제 카이와 이론에 비추어 보면, 여행은 놀이의 속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여행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일례아적인 속성이다. 현지인처럼 여행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미미크리 성향을 반영한다. 그리고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은 일링크스에 해당한다. 요한 하위징아의 놀이의 특성을 살펴보자. 하위징아는 호모 루덴스로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파베르로 설명하지 못한 인간의 특징을 소개한다. 하위징아가 주장하는 놀이의 네가지 특징 자유, 상상력, 무관심성, 긴장 등도 여행에 다 들어있다.



여행은 자유다

놀이의 기본 속성은 자유로움이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멈춘다.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 가 아니다.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출장 여행이 아닌 이상,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게 핵심이다. 시인 정지용은 여행을 ‘이가락(離家樂)’이라고 했다. 집 떠나는 즐거움이다. 집을 떠나 매일 가던 길에서 벗어나,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걷는 일이 여행이다.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당황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길을 잃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이 여행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패키지여행이 인기였다. 기성품처럼 만들어진 여행은 안전하지만, 재미가 덜 하다. 놀이의 우연이라는 속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자유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남녀노소 직접 여행을 계획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배낭을 메고 히말라야를 넘는 모습도, 방콕 수쿰윗 거리에서 어린 학생이 구글맵을 들여다보며 길을 찾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여행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꿈꿔온 여행이 무엇인지 자신을 먼저 살핀다. 캠핑여행이었는지 휴양여행이었는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살펴보는 들여다보는 시간, 여행은 스스로에 말을 걸게 한다. 에어비앤비의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도 새로운 패턴이다. 바쁘게 유명 관광지만 찍고 돌아다니기 보다는 한 달 정도 머물러 현지인처럼 여행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놀이의 즐거움은 커진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자유. 여행이 최고의 놀이인 큰 이유다.

놀이의 바다로 풍덩, 몰입의 순간들

두 번째 놀이의 대표적인 특징인 몰입. 여행은 최고의 몰입을 경험하기 좋은 놀이다. 놀이를 할 때 시간은 빨리 흐른다. 여행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책상 위에서 하루를 보낼 때는 그렇게나 더디게 가던 시계가 빛의 속도로 사라진다. 아쉽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 아쉬움을 품고 무아지경에 빠진다.

여행지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는 몰입을 체험하는 최고의 놀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발사된다. 처음 접해보는 서핑을 배우거나 전혀 모르던 스쿠버다이빙 등 액티비티를 즐기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한다. 몰입과 함께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는 환희를 느낀다.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의 국내여행도 다양해지고 있다. 물길을 타는 래프팅이나 리버버깅을 비롯해 22m 상공에서 자전거를 타는 익사이팅 사이클, 100m 높이의 절벽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그네 스윙, 하늘로 솟아오르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슬링샷 등 아찔한 놀이가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몰입은 관람으로도 만날 수 있다. 여행 중 만나는 공연과 음악은 피를 뛰게 만들고 열정을 품게 한다. 절규하는 노래와 처연한 기타소리,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하는 인내의 표정은 스페인 플라멩코를 잊지 못하게 한다. 예술을 통해,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



16 놀이로 긴장 수 풀면 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여행은
그 자체가 목적

세 번째 특징인 무관심성은 ‘목적성 없음’을 의미한다.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놀이는 자체가 목적이다. 의무나 책임이 없다. 놀기만 하면 된다. 여행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함께 어울려서 논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한다. 놀이는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서로 바라보는 것 하나 없이, 노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목적 없이 사진을 찍기도 한다. SNS에 올리지 않더라도, 멋진 풍경과 환한 미소는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만든다. 사진놀이를 하다보면, 놀이의 주체 창조자가 되는 기쁨이 스며든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놀이를 즐기다 보면 욕심이 생겨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놀이는 놀이 자체로 완벽하다.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에서 미학자 진중권 씨는 “상상은 정신의 창조적인 놀이이고 상상할 때의 정신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셈이니, 창조로 이어진다.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은 생존 욕구나 보상동기가 아닌 놀이와 창의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행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긴장 뒤에 따라오는 성취감

사진을 찍거나 여행기를 쓰지 않더라도, 여행은 자체로 성취감을 안겨준다. 배경에는 여행이 가진 긴장감이 있다. 긴장감도 놀이의 중요한 속성이다. 골목을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야하는 여행은 태생적으로 긴장을 품고 있다. 피곤하고 위험해지는 것이 두려워 용기 내기가 두려울 수 있다. 그러다보면 놀이가 주는 재미를 만나지 못한다. 두려움과 긴장을 안고 떠나지만, 여행지에 가면 대부분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즈음에는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 이 성취감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놀이를 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놀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최고 아름다운 본능이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여행 속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만드는 경험이야말로 호모 루덴스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일상이 심드렁해질 때, 묵묵히 여행 가방을 챙기는 이유다.

03

특집3

놀이문화와 충남관광

이인배 |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놀이의 문화현상과 우리의 삶

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

놀이는 우리의 생활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즐거움과 흥겨움을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활동이다’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요한하위징아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인류문화의 미래를 찾고 있다.

‘호모루덴스’에서 정의하는 놀이는 문화의 기능을 담당하며, 놀이속의 진지함·규칙·경쟁·의례·종교 등에서 문화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적 기능 발휘뿐만 아니라 놀이와 법률, 놀이와 전쟁, 놀이와 문학 및 철학속의 놀이, 예술에서 발견되는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놀이문화를 일정한 육체와 정신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이루는 활동으로 여겨왔다. 반면, 호모루덴스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놀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화적 기능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경쟁 중심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의 삶과 놀이 문화 요소

놀이하는 인간에서는 우리의 삶속에서 문화, 그 자체가 놀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문화를 생성하는 주체인 동시에 문화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놀이문화가 항상 녹아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동안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놀이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농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놀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께 했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논매기 현장에서 논을 매지 않고 논매기 노래로 이끄는 앞소리꾼이 있는가 하면, 상여가 나가는 현장에서 상여를 메기는커녕 상여를 타고 상여노래 앞소리만 부르는 앞소리꾼이 있다”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놀이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미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놀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미의 요소들로는 신명성과 우연성, 경쟁과 표현, 성취감 등이 있다. 또한, 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는 공동의 즐거움, 자유로운 행동, 이해관계가 없는 무(無)목적성, 자발적인 참여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은 식사나 수면 등과 같은 생리적인 필수 시간에서부터 일, 그리고 여가활동을 포함한 문화생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평생은 개인적 또는 공동체

관광활동과 놀이문화

사회의 일상적인 노동과 의례뿐만 아니라 휴식에 놀이적 요소와 그 특성이 녹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광(觀光)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

관광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지역의 문물과 제도 등을 시찰하고 풍경 등을 감상·유람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여행으로써, 관광 그 자체의 여행 행위로만 정의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관광은 다른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위락 및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광의 의미는 시대적 흐름속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특징을 충남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 불교행사와 장날에 이루어진 근대시기의 관광

근대관광의 시기라 하는 1910년 이전의 관광활동은 불교의 봉축행사 참여와 산중이 사찰을 찾는 종교관광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신도들의 여행 혹은 관광이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여행의 형태는 5일장 중심의 정기시장을 따라 행해진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여행이었다. 장날이면 놀이패와 난전 등 시장 놀이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 당시 정기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의 교환, 교류와 소통의 장이기도 하였다.

• 백제문화와 온천중심의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1911년~1945년)에는 철도의 부설과 함께 호텔이 세워지고, 온천장과 관광호텔이 개관되었다. 특히, 새로운 문물의 도입으로 충남의 백제문화 유적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물과 같은 문화적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는 근대적 관광시설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역사유적 중심의 방문과 놀이문화가 관광과 여행문화를 주도하였다.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지정된 해방 이후 시기

해방이후(1946년~1970년)는 남북 분단과 6.25전쟁 등 민족 수난으로 인해 놀이문화와 관광발전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의 삼층사 준공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계룡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충남은 도내의 국립공원과 관광지 지정이 이루어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과 관광활동, 놀이문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 백제문화권 개발과 국제행사 등 국제화 관광시기

이 시기(1971년~1980년)의 백제문화권 관광지개발은 전국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권 관광지개발과 역사문화 관광활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높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종 관광개발과 국제적 문화행사



가 개최되었고, 우리의 놀이문화를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세계에 부각시켰다.

이후, 1990년대 국제관광의 전환시대는 외국인의 방한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하여 외래 문물을 보고, 식견을 넓힘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인식전환의 시기였다.

•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 대중관광과 충남의 국제행사 개최 시대

대중관광의 시대(2001년~2010년)에는 국민들이 여행활동이나 체험관광 추구와 함께 여가권이나 관광에 대한 인식이 대폭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쟁적으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에는 농산어촌과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체험관광과 놀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도·농어촌 간 교류가 확대되었다. 도시민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지역주민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산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육성하는 등 가족 단위 관광자원개발과 놀이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충남은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2006·2011·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10 대백제전’ 등 지역문화와 특산물을 주제로 한 국제적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중관광의 시기 주5일제에 따른 농산어촌의 체험관광 활동과 국제행사에서는 지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민속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놀이문화의 발전과정과 현대화

놀이문화는 어느 지방이든 오락적 요소가 있으면서 개인 및 상대와 경쟁, 농경과 관련 깊은 집단놀이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예로부터 제천행사를 통해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연중 술 소비량도 많고, 관광지나 유원지, 노래방 등에서 단체로 가무를 즐기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행사나 지역문화행사, 가족 잔치나 모임에서도 술과 노래, 춤이 있는 전통공연이나 농악놀이 등이 우리의 놀이문화로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두레노동을 하면서 농경의례와 연관된 놀이도 발달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농경 위주의 삶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일상생활이 아닌 지역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나 축제에서나 전통놀이문화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놀이문화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와 지식산업시대로 발전해오면서 기존의 세시풍속에 따른 공동체놀이에서 놀이공원이나 노래방 등의 상업화된 놀이공간에서 상품화된 놀이를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핸드폰의 보급과 함께 최근 놀이문화로 떠오른 것이 사이버 공간의 가상놀이 문화이다. 또한 이전에는 일부 특권층의 놀이로 여겨졌던 골프와 볼링, 스키 등이 점차 대중화되었고, 캠핑과 글램핑과 같은 야외놀이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에 따라 놀이문화도 새롭게 진화하면서 즐기는 흐름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놀이문화속의
충남관광

역사문화와 슬로시티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보전하면서 향유한다는 것이다. 충남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들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많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리고 국립·사립·대학박물관 및 전시시설 등과 미술관 및 기념관에도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 속에는 수 없이 많은 우리 전통민속과 놀이문화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착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충남에는 예산군과 태안군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연공원과 산과 바다, 농어촌관광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이 대표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충남에는 계룡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도립공원으로는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 도립공원 등이 있다. 이들 자연공원 중에서 칠갑산에는 장승테마공간이 조성되어 전통문화행사와 민속놀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도 한다.

자연휴양림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친환경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농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은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자연휴양림과 농산어촌마을의 관광활동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이 담겨져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현대적인 레저스포츠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축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주제를 배경으로 관광객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축제프로그램에 콘텐츠를 활용하고, 놀이문화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연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충남의 문화관광축제로는 보령머드축제와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등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충남의 축제는 지역특산물 및 전통 역사 관련 축제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축제는 단순히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스토리와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요층의 체험형 놀이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또한 이들 축제에서는 지역의 농악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등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와 아산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등은 전통민속놀이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축제이기도 하다.

놀이문화로 충남관광 즐기

우리는 관광자원을 지칭할 때 자연공원과 유원지, 역사문화유적지와 문화재, 지정관광(단)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식물원 등의 관광대상지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전시관 등 문화기반 시설을 방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서는 농촌관광과 어촌관광, 산촌관광 등을 비롯하여 전통 및 생태체험 등의 공정관광 즉, 착한여행들이 자리를 잡으며 관광자원의 영역과 놀이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문화 및 다양한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들 또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즐길 수 놀이문화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충남에는 자연관광자원에서부터 역사문화와 인문·생활자원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이들 자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며, 전통문화행사와 함께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놀이문화를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 관광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질 높은 삶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놀이문화를 통해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희(1995),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임주환 외(1998),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요한 하위징아/이종인 역(2018),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충청남도(2019), 『2018충남관광기본자료』
충청남도평생교육원(2018), 『충남학Ⅱ』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9\)](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9))

01

논단1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와 입주 희망자 특성분석¹⁾

임준홍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13.8%로 비교적 높지만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4.1%)은 낮고²⁾, 주택공급 주체 역시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 주도의 공급은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³⁾, 로드맵에서는 생애주기 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는 충청남도 역시,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주거약자의 거주안정성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사업 네이밍으로 5,000호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최근 아산에 첫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임대주택 수요와 임대주택 선호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더 행복한 주택’ 공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가구부문과 주택부문)과 2018년 충남 사회지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2. 충남 임대주택 수요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13.8%로 비교적 높지만,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4.1%)은 낮다. 임대주택 총공급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계량적·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1) 임준홍, 충남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 그리고 입주 희망자 특성, 2018, 충청남도 보고서 내용 일부를 논문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임.

2)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정리, 2018

3)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Ⅰ 표 1 | 충남 지역(시군)별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단위: %)

구분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전체주택 대비 임대주택	공가율
군급 도시	125.9	4.2	2.9
시급 도시	115.5	5.9	4.9
충남 전체	113.8	5.5	6.1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정리, 2018

충남 임대주택 수요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설정(적용)하고,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가구부문과 주택부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① 무주택자-현재 주택점유형태가 자가 가 아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② 85m² 이하의 주거용 연면적 주택에 거주, ③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규모-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충남을 세 권역 즉,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북부권 이외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임대료를 설정하였다.

Ⅰ 표 2 | 권역별 적용 임대료

구분	시지역		군지역
	북부권	북부권 이외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임대료	30만 원 미만	20만 원 미만	20만 원 미만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	1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보증금과 월임대료 모두 있는 경우, 월임대료/보증금	20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5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15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추정 결과 충남 전체적으로 53,696호의 수요가 예측되며, 현재 공급량인 38,796호(2017년 6월말 기준, 도청 내부자료)를 제외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요량은 1만 5천호(14,900)정도로 예측된다.



Ⅰ 표 3 |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 결과 (단위: 호)

구분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치	가구수
충청남도		53,696	815,459
천안시	동남구	6,776	105,345
	서북구	8,587	134,501
	공주시	2,347	43,027
	보령시	2,994	41,328
	아산시	13,193	115,266
	서산시	5,385	64,886
	논산시	3,790	49,160
	계룡시	1,011	13,614
	당진시	2,923	64,346
	금산군	1,013	23,252
	부여군	523	28,158
	서천군	1,067	23,453
	청양군	420	13,157
	홍성군	1,374	37,499
	예산군	1,455	33,205
	태안군	838	25,262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

특히, 민선7기 충남의 주요공약인 ‘더 행복한 주택’ 수요는 주 타겟층인 (1순위)예비신혼부부, (2순위)신혼부부, (3순위)청년층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총수요는 53,696호, 입주의향을 고려하면 6,336호(11.8%)로 추정된다(충남 사회조사 원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이다⁴⁾). 결혼적령기(25~39세) 수요는 15,839호, 입주의향은 3,880호(24.5%)이며, 신혼부부(25~39세, 기혼) 수요는 8,832호, 입주의향은 1,845호(20.9%)로 분석되었다.

Ⅰ 표 4 | 도내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 추정 (단위: 호, %)

구분		전체	결혼적령기 (25~39세)	신혼부부 (25~39세, 기혼)
임대주택 수요(A)		53,696호	15,839호	8,832호
입주 의향	계(B)	6,336호	3,880호	1,845호
	비중(B/A)	11.8	24.5	20.9
	공공임대	9.7	19.2	15.7
	민간임대	2.1	5.3	5.2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

4) 홍성효, 「충남 공공임대주택 수급분석」, 2018

3.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특성

임대주택 입주 희망 선호도는 개인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미혼자와 이혼자, 고졸 이상 학력자가, 도시형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주 희망도가 높았다.

Ⅰ 표 5 Ⅰ 개인 속성별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특성

구분		군집분석결과	교차분석 결과			카이자승 (유의수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민간임대주택 입주희망	임대주택 입주희망 안함	
전체			9.7	2.1	88.2	-
성별	남성	1	9.0	2.1	88.9	24.242 ^a .000
	여성	1	11.6	1.9	86.5	
연령별	15~19세	1	11.2	4.5	84.3	655.614 ^a .000
	20대	2	19.4	6.3	74.2	
	30대	2	18.2	5.2	76.5	
	40대	2	14.2	3.8	82.0	
	50대	1	11.4	2.3	86.3	
	60세 이상	1	5.4	0.6	94.0	
혼인 상태	미혼	2	19.7	4.5	75.8	490.093 ^a .000
	배우자 있음	1	8.0	2.2	89.8	
	사별	1	6.9	0.6	92.5	
	이혼	2	23.7	2.4	73.9	
학력별	초졸 이하	1	4.9	0.5	94.6	407.448 ^a .000
	중졸 이하	1	7.9	1.0	91.1	
	고졸 이하	2	13.2	2.5	84.3	
	대학 이상	2	12.7	4.1	83.2	
직업	전문/관리	1	11.0	3.6	85.4	426.943 ^a .000
	사무	2	13.4	4.2	82.4	
	서비스/판매	2	13.8	3.3	82.9	
	농어업	1	2.6	0.4	97.0	
	기능/노무등	2	13.8	3.0	83.3	
	기타	1	8.6	1.1	90.3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	7.4	0.5	92.1	213.029 ^a .000
	100~200만 원 미만	1	10.2	1.6	88.2	
	200~300만 원 미만	2	13.7	2.5	83.8	
	300~400만 원 미만	1	11.4	3.8	84.8	
	400~500만 원 미만	1	9.4	3.9	86.7	
	500만 원 이상	1	7.5	3.0	89.5	
사회 경제 지위	상	1	3.8	3.5	92.7	115.895 ^a .000
	중	1	7.7	2.3	90.0	
	하	1	12.6	1.7	85.7	

Base = 전체

주: 군집분석 결과는 'k평균 군집분석결과'이고, 최종 군집중심간 거리는 13.450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

가족 및 거주 특성별 임대주택 입주 희망 선호도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은 1인 가구, 아파트와 연립·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전세나 월세 거주자, 도시지역인 동 지역과 읍지역 거주자와 천안, 아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거주자들의 입주 희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Ⅱ 표 6 Ⅱ 가족 및 거주 특성별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특성

구분		군집분석 결과	교차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민간임대주택 입주희망	임대주택 입주희망 안함	카이자승 (유의수준)
전체			9.7	2.1	88.2	-
총 가구원 수	1인	1	12.1	2.4	85.5	100.119 ^a .000
	2인	1	7.7	1.3	90.9	
	3인	1	10.2	2.6	87.2	
	4인 이상	1	9.6	3.3	87.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	5.0	1.1	93.9	627.462 ^a .000
	아파트	2	16.5	3.7	79.8	
	연립/다세대주택	1	12.7	2.3	84.9	
	기타	1	11.5	1.2	87.3	
주택 점유 형태	자기집	1	3.5	0.8	95.6	2361.588 ^a .000
	전세	2	23.2	6.2	70.6	
	월세/기타	2	29.6	5.5	64.9	
충남 거주 기간	5년 미만	2	16.4	6.5	77.0	493.047 ^a .000
	5~10년 미만	2	14.9	3.9	81.2	
	10~15년 미만	2	15.4	3.9	80.7	
	15~20년 미만	2	15.2	3.4	81.4	
	20년 이상	1	7.5	1.1	91.5	
거주 지역	동	2	12.8	3.1	84.1	301.973 ^a .000
	읍	2	13.7	1.8	84.5	
	면	1	5.3	1.6	93.0	
거주 시군	천안시	2	14.2	3.9	81.9	611.097 ^a .000
	공주시	1	9.2	2.5	88.3	
	보령시	1	5.6	0.4	94.0	
	아산시	2	12.9	2.6	84.5	
	서산시	1	9.1	2.5	88.4	
	논산시	1	6.6	2.0	91.5	
	계룡시	2	17.2	8.6	74.2	
	당진시	2	13.9	2.6	83.5	
	금산군	1	11.3	0.8	87.9	
	부여군	1	6.9	0.4	92.7	
	서천군	1	2.4	0.1	97.4	
	청양군	1	8.6	0.4	91.0	
	홍성군	1	13.1	1.7	85.2	
	예산군	1	6.2	0.8	93.0	
	태안군	1	3.4	0.3	96.2	

Base = 전체

주: 군집분석결과는 'k평균 군집분석결과'이고, 최종 군집중심간 거리는 13.450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



4.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 과거와 비교한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민선7기 충남도의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임대주택 수요추정을 위해 월임대료,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가구부문과 주택부문)을 이용·추정한 결과, 충남은 전체적으로 53,696호의 수요가 예측되었고, 현재의 공급량인 38,796호(2017년 6월말 기준, 도청 내부자료)를 제외하면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요량은 1만 5천호(14,900)정도로 예측된다.

둘째, 충남형 공공주택 수요는 53,696호로, 입주 의향을 고려하면 6,336호(11.8%)로 추정되며(충남 사회조사 원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이다. 결혼적령기(25~39세) 수요는 15,839호, 입주 의향 3,880호(24.5%), 신혼부부(25~39세, 기혼) 수요는 8,832호, 이 중 입주의향은 1,845호(20.9%)였다. 지역별 신혼부부 입주 수요는 천안, 아산 등 서북부권에 편중(천안 3,300호(입주의향 690호), 아산 1,500호(입주의향 313호), 서산 770호(입주의향 161호), 당진 640호(입주의향 133호))되어 있다.

셋째,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40대 이하의 상대적 젊은층, 미혼과 이혼자, 월소득 300만 원 이하의 생활자가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주특성에 따라서는 현재 아파트 거주자, 전월세 거주자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가의 선호도가 높았다.

참고문헌

임준홍 외(2018), 새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한 충청남도 임대주택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임준홍 외, 충남형 공공주택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강미나 외(2007),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국토교통부(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김지은(2018), 사회주택 사례와 충남의 가능성과 과제, 충남연구원(워크숍 자료).
손경환·김혜승(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국토연구원
손호진(2018), 경기도형 행복주택 baby2+따복하우스
진미윤·최지웅(2013), 중장기(2013~2030), 주택수요 전망 연구
진정수·정희남 외(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홍성호(2018), 충남 공공임대주택 수급분석

01

충남의 섬

외딴 섬 등대지기 그리운 옹도

이재언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섬의 개요

충청남도에는 두 개의 옹도가 있다. 태안군의 옹도와 가로림만 안에 있는 서산시의 옹도이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섬은 태안에 있는 옹도이며 유인등대가 있는 곳이다. 옹도는 면적이 0.17km²이며, 섬둘레는 0.4km, 높이가 80m, 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다. 옹도는 향아리처럼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배를 타고서 바다에서 바라본 옹도는 꼭 고래처럼 생겼다. 섬의 정상에 있는 등대의 모습은 고래가 숨을 쉬면서 뿜어내는 물줄기처럼 생겼다. 1973년 내무부의 도서지에 의하면 당시 인구는 2가구 8명의 주민들이 살았다. 지금은 외롭게 등대지기만 이 섬을 지키고 있다.

섬 둘러보기

2013년 6월 일행 5명과 함께 여수에서 완도항, 진도 팽목항을 거쳐서 신안군 만재도 흑산도 군산의 어청도, 충남의 외연도를 거쳐서 신진도에 와 일박을 하였다. 다음 날 옹도와 난도 궁시도 최종 목적지인 격렬비열도를 향하면서 잠시 옹도에 정박하였다. 태안반도 안흥신항(신진도)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옹도는 선박운항이 제일 어려운 관장항 수도에 위치하며 황해의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바라보니, 옹도가 서서히 드러난다.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일명 관장목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류가 빠르고 암초와 무인도가 많아 예전에 조운선의 침몰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예전에는 서해안의 가장 외해인 격렬비열도를 지나서 안흥으로 들어오던 중국 대부분 배들이 이곳에서 슬하게 사고를 당하였



1. 옹도 민간에게 개방
2. 옹도에 들어온 관광객들
* 태안군청 제공

다. 그때 난파된 배들이 1,0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가 최근에 난파된 배들의 흔적이 발견되어 다량의 유물을 건져 올려 내고 있다. 이곳이 바로 태안 근흥면으로 옹도와 마도 사이의 바다이며 수중문화재가 널려 있는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곳이다. 2007년부터 태안선, 마도 1~4호선 총 5척의 배가 발견됐고 백자, 청자 등 수많은 유물이 발굴됐다. 최근에는 5호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다. 고려도경에 나오는 중국 송나라 사신 서고는 1123년 고려 개경에 다녀온 뒤 마도 해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돌부리 하나가 바다로 들어가 있어서 물과 부딪쳐 파도를 돌려보내는데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배가 그 아래를 지나갈 때는 대부분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데…”라고 묘사했다. 조선 태조와 세조까지 약 60년간 마도에서 세 곡선이 200척이 침몰하였고 1,200여 명의 선원이 숨졌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나온다. 이곳은 워낙 간만이 심하여 배들이 오고 가기를 꺼려서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렸다. 나중에 편안한 길목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안행량(安行梁·안흥량)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탐사선 등대호는 처음부터 옹도의 상륙은 일정에 없었고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는 어렵듯이 짐작은 했지만 유인 등대 외에는 별로 정보가 없었다. 안개 때문에 레이더가 없는 우리 배는 천천히 먼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난 섬이 유인 등대가 있는 옹도였다. 마침 북동쪽에 등대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배를 접안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리로 대고 옹도

3. 옹도 전경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그때 이곳 사정을 잘 모르고 배를 접안한 필자는 그것도 모르고 잠시 올라가다가 다시 동행한 일행과 함께 내려와 배를 안전하게 대고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 물의 흐름이 처음과 달리 엉뚱하게 반대로 흐르면서 처음에 배를 정박한 상태로 그냥 두었으면 커다란 배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그때 필자를 도와 주었던 분이 낚시의 대가 권혁주 선생이다. 결국 그 배는 다음 날 목포 앞 바다에서 좌초를 하여 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이 일로 일주일 간 순천교도소에 들어갔다.

서해의 유인 등대섬인 옹도에는 충남의 대산 향만청 소속 직원들인 등대지기 세 명만이 살고 있다. 소장과 두 명의 직원은 보름 간격으로 옹도와 육지를 오고가면서 교대로 근무한다. 그때 마다 여객선이 없기 때문에 대신 행정선이 온다. 하얀 등탑은 섬의 왼쪽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숙소 건물이 보인다.

등대를 제외하곤 아무런 집도 살만한 여건도 안 되는 그야말로 고독한 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40년 전에 두 가구가 살았더니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선착장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는지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 옹도 등대



등대로 가는 길은 테크로 시설하여 아주 잘 만들어두었다.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오른쪽 시멘트 계단은 예전의 것이고 왼쪽에 있는 나무로 된 계단은 새로 조성한 것이다. 시멘트로 된 기존 계단 옆에는 물건 운반용 모노레일이 있다. 돌계단으로 오르는 암반 위에 하얀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예전에는 초소로 사용되었을 건물로 지금은 폐쇄되었다. 목재 계단을 타고 오르면 중간에 전망대 시설을 해두었다. ‘동백꽃섬터’라고 명명되어 있다. 이곳에는 조형물 두 점을 설치해 두었는데 동백꽃 조형물과 물가자미조형물이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은 태안 마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안마도 보물선과 조운 해상길!’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이 안내판에는 보물선 발견과 시대적 배경 안내문과 함께 출토 유물 사진 등이 실려 있었다. 이어 길은 잔디와 함께 박석이 깔린 길로 바뀐다. 길은 두 가지로 되어있다. 왼쪽의 동백숲을 통과하는 돌계단길과 오른쪽 잔디와 박석이 깔린 길이 그것이다. 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비밀통로 같다. 동백나무가 무성했다. 나무 숲 사이로 깊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5. 옹도 주변



박석이 깔린 길로 해서 올라가면 옆으로 화물용 모노레일과 평행을 이룬다. 모노레일은 등대 담벼락까지 이어지고 그 끝에는 수레가 있다. 주변에는 새롭게 식수를 하고 있다. 나무들이 자라면 무성할 것이다. 사실 주변에는 숲이 무성한 편이다. 실제로 봄이면 동백꽃이 장관을 이루고, 2백년쯤은 족히 되는 동백나무 군락이 산등성 오솔길을 따라 밀집되어 있다. 등대에 다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뺄곡하게 뒤덮은 동백나무 군락은 이곳이 남방계 식물의 영향권임을 말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산등성이에는 천남성이, 찔레꽃, 산벚나무 등의 자생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다. 현재 옹도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있어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관할 관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 해양수산시설 문화공간을 조성,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약간 숨 가쁘게 오른 끝에 닿는 등대. 등대 입구는 ‘환영의 게이트’로 명명되었다. 북쪽으로는 철제로 난간을 만들었지만 그 외는 시멘트로 담장을 둘렀다. 주변 담장이 파도 아니면 물결 형상이다. 담장에는 또 곳곳에 원형으로 된 배의 유리창을 만들어놓았다. 철제 난간이 있는 두 개의 안내판이 세워져있는데 이곳은 ‘생명의 바다’라고 명명되어 있다. 이곳 화단에는 등대 100주년 기념표지석이 있다. 그 아래에는 태양열집열판이 있다. ‘중앙광장’으로 명명된 마당은 보드블록을 깔았고 조형물이 몇 개 세워져 있고 마당 한 가운데에는 웅기 형상을 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주변에 각종 안내판과 함께 망원경을 설치해두어 주변의 섬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다른 섬들이 보인다. 웬만한 섬은 다 보인다고 한다. 푸른 하늘을 보다 눈길을 떨어뜨리면 바로 푸른 바다이다. 하늘과 바다가 닿아있어 둘의 구분이 없다.

등대 뒤에 하늘전망대가 있는데 역시 주변에는 격렬비열도 등의 안내판 등이 세워져 있다. 옹도 동쪽으로 단도와 가의도, 죽도, 부억도, 목개도 등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갯이갈매기 서식지인 난도, 활과 시위에 걸린 화살과 비슷하다는 공시도, 병풍 모양의 병풍도 등이 수평선 위에 펼쳐져 있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옹도 등대의 자랑거리이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옹도 자생식물’군락지가 있고 그 옆으로 ‘송신탑 퍼블릭아트’가 있다. 그 옆으로 길게 나무로 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 해안 쪽으로 내려가면 ‘데크전망대’가 있고 그 옆으로 오른쪽 공터에 하늘색 물범조형물이 있다.

한편, 현대적인 등대는 인공위성의 전파정보를 받아 하늘과 바다를 하나로 잇는 이른바 DGPS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천후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다. 옹도 등대는 대전 위성항법중앙사무소와 연계하며, 여기에도 서산기상대의 위탁기상까지 떠맡고 있다.

옹도 등대의 역사

옹도 등대의 정확한 명칭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옹도 항로표지관리소이다. 1907년 5월 불을 밝혀서 100년이 지났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1906년부터 일제가 바다의 중요성 때문에 5년 계획으로 바다에 등대를 건설하면서 옹도는 전국의 37개 등대 가운데 하나이다. 인천 팔미도 유인 등대는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된 곳이다. 옹도 등대는 9번째로 세워졌다.

옹도등대는(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옹도 항로표지관리소)는 1907년 1월에 처음 등대불을 밝혀 백 년이 넘는 동안 태안 앞 바닷길을 지켜오고 있다. 바다 멀리 약 40km지점에서도 육안으로 불빛을 볼 수 있어 서해상에 위치한 항구(대산, 평택, 인천)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길잡이로 불을 밝혀오고 있다. 오늘날의 등탑은 2008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1월까지 약 16개월에 걸쳐 완공하였다. 등탑의 최고 높이는 25.4m이며, 함선을 상징화한 원형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등대동과 숙소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대동 2층에는 항로표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고 3층에는 주변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옥상전망대가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문화자원으로의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관할관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체험학습공간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2013년 6월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문화공간으로 운영중이다. 원래 충남의 유인 등대는 옹도와 북격렬비도와 안도에도 있었으나 현재는 옹도만이 유일하게 유인 등대로 남아있다. 외해에 속한 북격렬비도는 94년 4월, 태안항에서 8km 전방에 있는 안도 등대는 1998년 7월에 육상에서 원격 조정 기술로 콘트를 한다. 그러나 북격렬비도는 섬의 위치와 중요성 때문에 2015년 9월에 유인 등대로 변한다는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고로 전국 유인 등대 중에 12개 등대가 원격조종 형태로 변모됐다.

등대는 바다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것 외에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등대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항로표지시설 내에 공원과 해양체험공간, 박물관, 숙소, 낚시터 등으로 변신한 덕분이다. 실제로 유인 등대를 방문하는 숫자는 2008년 207만 3,352명, 2009년 360만 8,35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등대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첨단 항해 장비가 등장해서 예전처럼 등대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캄캄한 밤바다의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칙칙 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최근에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해안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문명과 어우러진 등대는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로 모든 등대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지금 유인 등대가 서서히 무인 등대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등대가 전남 신안군의 칠팔도와 홍도, 원도군 어룡도, 여수의 백야도, 진도의 죽도와 인천의 안도 등이다. 앞으로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인 등대가 무인 등대로 변하는 중에 가장 아쉽고 섭섭해 하는 곳은 바로 등대가 있던 그 섬이다. 이 등대는 주민들의 역사와 함께 희노애락을 보냈기 지내왔기 때문이다.

6. 옹도의 데크시설



01

충남시장플러스

찬란한 백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주, 산성시장을 가다

이민우 |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공주산성시장의 모습

공주의 숨겨진 명소, 산성시장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이후 충남의 소도시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 공주, 그 중에서도 산성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곳곳에 퍼져 있는 공주의 숨겨진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금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자리한 원도심은 수년간 공을 들인 공주시의 원도심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골목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공주산성시장은 매월 1일, 6일 열리는 5일장으로 제법 더운 날씨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산성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30분마다 5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이용 가능하고, 시장 내의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차권을 받을 수도 있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공주에서의 추억을 찾아서

공영주차장에서 보이는 산성시장 간판을 따라 조금만 걸어내려 오다보면 주황색의 무인자동화기기를 만날 수 있다. 시장안내부터 주변 관광지 안내까지, 또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촬영 기능도 있으니 공주시 여행을 온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다. 산성시장은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한 발만 걸음을 돌려도 시장 내부 어디로든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골목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다. 벽 한 귀퉁이에 작은 새 조형물들이 붙어 있는가 하면 벽화가 그려진 곳도 있어 새로운 사진 포인트를 찾는 재미 또한 소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산성시장의 간판을 따라 걸다보면 나타나는 무인자동화기기



시장 골목을 구경하며 직선거리로 쭉 나오다보면 어느새 탁 트인 광장이 펼쳐진다. 전통기와문양을 살린 공주산성시장 간판 안쪽으로 주말이면 야시장 행사를 하는 소규모 무대와 어린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바닥분수도 설치되어 있다. 산성시장광장의 활발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금요일 밤부터인 주말이 가장 좋을 듯 하다. 낮에는 광장 한쪽에 마련된 라디오방송국에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보듯 라이브로 공주시의 여러 사연과 노래를 소개해주고, 인터넷 카페모임 등에서 함께하는 벼룩장터도 열린다. 밤이 되면 광장은 더욱 활발해진다. 한편으로 야시장 점포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무대에서는 공주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나 학생동아리들의 공연이 한창이다. 광장의 야시장에서 전통음식부터 퓨전요리까지 다양한 먹거리, 안주거리와 함께 공연을 보고 있다면 절로 신이나기 마련이다.

[공주산성시장 : 산성시장공원 이용료 무료 / 시장공영주차장 30분당 500원]

공주산성시장 근처 가볼만한 곳

산성시장을 조금 벗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유명한 무령왕릉 방향으로 가다보면 언덕 위의 새하얀 예수성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은 황새바위라 하여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성지이다. 돌계단을 걸어오르면 작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이라면 조용히 산책을 하기도 좋을 듯 하다.



[황새바위성지 : 관람료 무료 / 주차장 있음]



공주산성시장 근처 가볼만한 곳으로 또 하나 손꼽히는 곳이 있다. 박찬호 선수의 생가터를 재 정비해서 조성한 박찬호기념관이 그곳이다. 2018년에 생겨 아직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으로 언덕길을 조금 오르다보면 페타이어로 만든 황소 조형물과 투구하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담은 동상을 볼 수 있다. 페타이어로 만든 이 조형물은 박찬호 선수가 소띠인데다가 경기 전 모자를 벗고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조형물이라고 한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면 박찬호 선수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부터 LA다저스 현역 시절의 락커룸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 박찬호 선수가 몸담았던 구단 모자와 글러브 등 소품과 당시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들을 만날 수 있다. 또 기념관 바로 옆에는 실내야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겠다.





[충남역사문화박물관 : 관람료 무료 / 주차장 있음]



박찬호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중동초등학교 근처까지 올라 오다보면, 예전에는 공주박물관으로 자리하였다가 박물관 이전 후 재정비한 역사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건물 앞으로 넓게 나무그늘도 자리하고 있어 가을바람 선선한 맑은 날씨라면 소풍 장소로도 좋은 곳이다. 또, 2019년 10월 9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4주년 기념전으로 무령왕릉 사진전을 특별전시 하고 있어 세계유산등재의 의미가 있는 무령왕릉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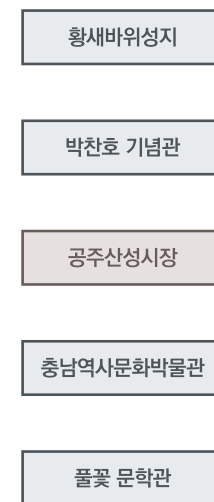
역사박물관의 숨은 진가는 바로 벚꽃 피는 봄에 있다. 박물관 건물 한 쪽으로 난 휴식동산으로 몇 계단만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족히 몇백년은 될 법한 벚꽃나무들이 온통 둘러싸고 있다. 해마다 봄이면 가지마다 빼곡하게 핀 벚꽃을 보며, 또 내리는 꽃비를 맞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낭만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누구나 알 법한 이 구절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공주사대부고 근처 낮은 언덕에 자리한 풀꽃문학관은 일본식 가옥을 재구성하여 개관한 문학관이다. 단순히 전시관의 형태가 아니라 나태주 시인은 물론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들이나 문학 지망생들이 자주 찾으며 답소도 나누고 강론도 나누는 활동적인 형태의 문학관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옛 가옥의 조용하고 예스러운 분위기에 복잡한 생각도, 피곤도, 한 가닥 내려놓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 운이 좋으면 나태주 시인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 있는 답소 한 움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볼 만한 곳이다.

[플꽃문학관 : 관람료 무료 / 주차장 있음]



공주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공주시 원도심 일부만 돌아보았는데도, 공주시는 꼭 세계문화유산 등재 명소가 아니더라도 이곳저곳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아볼 곳이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여도, 연인과 함께여도, 가족과 함께여도 서로 다른 의미로 충분히 마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주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한 번쯤 여행해볼 만한 곳이 아닐까 싶다.



[산성시장 주변의 여행코스]

01

열린충남

충남의 마지막 독립운동가, 이일남 애국지사

이유나 |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충남의 발길이 금산을 향한다. 충청남도의 살아있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이다. 충남의 독립운동가 1,241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일남 애국지사를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금산, 바람도 선한 그 곳에 다녀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서채영 여사는 양손으로 연신 머리를 다듬었다.

1925년 태어난 이일남 애국지사의 독립운동은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일본인 교장은 노골적으로 ‘조선놈’을 차별했고, 이에 학생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항의를 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비밀결사단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펼쳤다.

그는 1943년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만주 독립군에 독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떠났지만, 독립군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는 1944년 12월 귀국하여 다시 고향인 금산으로 돌아와 만주의 실정을 알렸다. 이 지사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해 계속해서 독립자금을 모았고, 그러던 중 1945년 1월 일본 헌병에게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옥살이를 하던 중 같은 해 8월 17일 광복과 함께 출소를 하게 되었다. 옥살이동안 고문으로 몸은 성할 날이 없었고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도 걸려 하루하루가 생사를 넘나드는 날들이었다고 한다. 출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지옥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항일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1986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더 똑바로 살아야 돼”

서채영 여사가 평생을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이었다. 여사께 두 분의 만남에 대해 물었다. 두 분은 중매로 만났으며, 이 지사가 여사를 참 많이 좋아했다고 했다. 결혼 생활은 내내 조심스러웠고, 두 아들과 네 딸에게 늘 바른 몸가짐을 당부했다고 한다. 본인 또한 당연히 그렇게 사셨을 터였다. 독립운동



이일남 지사를 찾은 양승조 충남도지사



건국훈장 애족장

가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늘 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뭐 그리 꽃꽃하게 구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래도 독립유공자로서의 삶에 대해, “좋았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알아주고.”라며 찾아주고 기억해주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록이 남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 지사의 두 명의 친구 이야기를 전했다. 이 지사는 당시 사건 기록이 일본 법원으로까지 넘어가 정부보존 기록서에 자료가 남아있지만 친구들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일남 지사가 이를 평생을 아파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들의 독립운동 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하던 이 지사에게 후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이제 노환으로 인터뷰에 답을 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 순간 이 지사가 손을 꼭 잡았다. 남은 힘을 다해 꼭 붙드는 그 손이 많은 이가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나라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각계분야에서 이일남 지사와 서채영 여사를 찾아오고 있었다. 필자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다시 찾아뵙겠노라 약속했지만, 다시 지사의 손을 맞잡아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길다면 길, 짧다면 짧을 남은 시간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일남 지사를 찾는 이유는 분명해야 할 것이다. 감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이 네 글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흘렸던 피, 땀을..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귀하게 얻은 이 나라와 평화를..



01

열린마당

농민 노동도 존중받는 사회

엄청나 | 예산군 농민회 사무국장

밖에 잠시 서있기도 힘든 여름이다. 그늘을 찾아도 덥고, 부채로 암만 부채질을 해도 팔만 힘들고 더운 바람은 기운만 떨어진다. 폭염이라고 낮엔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뽁뽁 댈다. 하지만 한낮 더위 속 농민의 발걸음은 하우스로 향한다. 나는 그 농민을 향해 “그러다 약값 더 들어요. 지금 하우스 들어가면 죽어요. 이따 일하셔요~”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친다.

“차광막 쳐서 괜찮어~”

괜찮긴 뭐가 괜찮을까. 하지만 지금 따지 않으면 수박이 너무 커져 터지는 일을 봐야하니 어쩔 수 없다는 그의 이야기에 나머지 말을 삼킨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바람과 물과 태양의 도움을 적절히 받고 협력하여야 하는 농민에게, 모든 일을 통제 할 수 없는 순리에 따르는 모습이라 여기며 그냥 넘겨야 할까? 일을 진행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농민 스스로 이기에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여겨야 할까 생각이 많아진다.



8월 6일 장글땀게 더운 날,
탄저병으로 한고랑에
20kg포대 하나 채우지 못했더라
인타까워 하는 농민

화장실도 사치인 농민의 노동환경은 어쩔수 없는 것인가.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온 사회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현장에 대한 분노로 연일 뜨겁다. 폭염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컨은커녕 창문하나 없는 곳이 휴게실이었다는 사실에 비정함이 느껴졌다. 아직도 이런 노동환경이 존재한다는 평한 충격, 그리고 함께 이런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개선의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 이쯤에서 나는 농촌이 생각한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무방비로 노출된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일하는 농민들 말이다. 모자를 써보지만 내리쬐는 태양빛을 막기엔 역부족이고, 아침 저녁 선선해지면 일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놈의 여름 태양은 아침 저녁의 선선함도 빼앗은지 오래다. 봄과 여름사이 물이 부족해 물을 제때 대주지 않았더니 논에 잡초도 많아 그것도 뽑아야 하고, 참깨도 벼서 털어야 하고, 고추도 따고, 고구마 줄기도 따야 하는데 낮시간을 몽땅 빼면 일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미세먼지가 심각 수준인 날에도 마스크마저 여의치 않은 농민의 작업환경은 화장실에서 절정을 이룬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그 고통을 안다. 밭에서 일하다 뺏속에서 일어나는 신호의 고통을. 아침 일찍 나가면 밭에서 점심시켜 먹고, 참먹고 저녁까지 일하다 돌아오는데, 밭에는 화장실이 없다. 과수원이고 논이고 매한가지다. 그나마 이런저런 구조물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은 낫지만 너른 들 녘은 민망함을 보여주기보다 인내의 고통을 선택하게 하기도 한다.

개별 경영체가 하는 농업경영이고, 농사처도 개별 농민의 사업장이니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므로 농민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은 사업주인 농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걸까? 농업경영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밭에 일하러 온 농업노동자의 근로 환경의 열악함은 사회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일까?

UN 농민권리 선언 14조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하고, 특히 책임 장국을 지정하고 분야 간 조정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작업 안전성과 농업농·산업, 어업 등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의 실행, 국내법집행 및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시정 대책과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면, 농촌일터를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감시체계를 수립 지원해야 한다”

‘반성폭력’, 농업현장은 예외인가?

작년 충남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반성폭력예방교육 현황과 관련한 보고회에 간적이 있었다. 충남도 공무원의 90% 이상이 이를 이수했다고 나오고 이장, 조합이사회 등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진행과 관련한 수치들이 쭉 나열됐다. 하지만 농업노동 현장에 대한 반성폭력예방교육은 그 통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사업장이라면 어디라도 해야 한다는데 우리 농업현장은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신문을 도배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농촌사회의 성인지로 인한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들에 기업을 토하지만 농민에 대한, 농업현장에 대한 개선은 어디에서 그 처방이 있는지 살피기조차 어렵다.

UN 농민권리 선언 4조

“국가는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시키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며, 농촌의 경제적,사회적그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농어업인안전재해법, 농업 산재보험은 본인선택

우리나라 노동산재 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산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농업산재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선택에 의한 보험가입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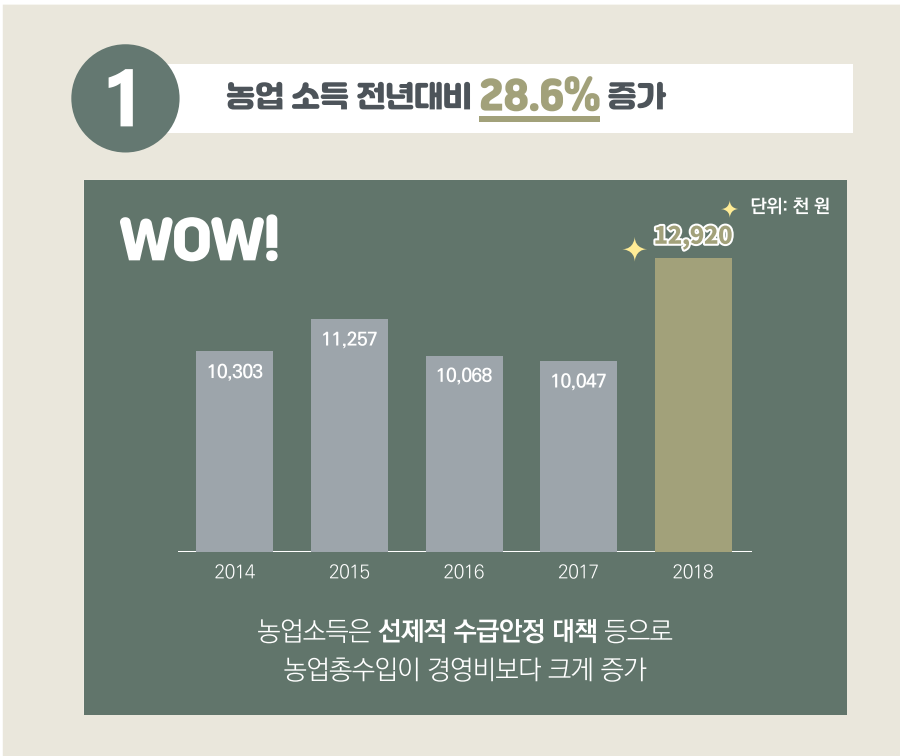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0만이 되지 않는 영세소농이 전체 농가의 70% 수준에 달하는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보험가입 의무화는 중요한 원칙이다. 보험금의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 대한 산재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와 견주어 보면 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것일까 가뭇하게 된다.

2017년 통계청 통계로 전체 산업의 산재율은 0.49%이다. 현대 동기간 농업은 전체 190만 농민 중 4만 명인 2.2%가 업무상 손상을, 8만9천명인 4.8%가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고 한다. 농업 손상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통계의 심각성은, 농업산재의 대책이 현황과 같은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UN 농민권리 선언 22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농업소득이 1,292만 원이 됐다고 WOW! 하는 나라!



출처: 2019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그

농민의 농산물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동한 농민의 노동력이 담겨 있다. 하기에 농민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은 농업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보장이다. 소위 말하는 최저생산비는 농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산출에 지나지 않으며 농산물 가격은 최저 생산비가 아닌,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저 임금처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의 가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낮은 농산물 가격에 의한 농가경제의 곤란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벌어진 농산물의 가격의 연이은 하락과정에서 사회적 대처는 우리 사회가 농민의 노동력의 산물인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양파 1kg에 300원, 마늘 1kg 1,000원. 농민이 아니라도 이정도 가격은 생산비는커녕 포장비 값도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농산물 가격폭락은 양파 마을에서 그치지 않고 고추와 과수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풍년의 역설이라고 가격폭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의 인권, 농민의 삶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대책이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 보장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범주에 속한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연 1,888만 원일 때, 우리 농민의 농업소득은 1,292만 원 이마저도 평균 이기에 이에 못미치는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농림수산물부 홍보물에 등장한 “WOW!”는 등외국 민인 농민에 대한 농림부 속마음의 내비침 이라는 생각은 과한것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

UN 농민권리 선언 13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노동권을 가지며...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 그리고 그들 가족에게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위한 보상이 제공되는 일의 기회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업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 하지 말자!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지위의 차이나 경제력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도, 노동의 종류로 결정되는 것 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과 노동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대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때양별 아래에서 일하는 농민 들에게도 더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에게도, 농 업노동자에게도 화장실은 필수 시설이다.



산업재해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이 존재한다면 농업산재와 농업현장의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와 제도 역시 필요하다.

안전한 환경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있다면 농업현장의 안전, 농사로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노동자에게 최소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농민들의 노동의 산물인 농산물의 가격 역시 적절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장들이 농민이기에 예외가 될 순 없다. 농민의 노동이 보장되는 것이 곧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지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인식 수준을 엿보는 중요한 척도 가 되어야 한다.

작업의 특수성, 농업의 특수성이라 치부되는 열악한 농업노동환경. 함부로 특수하다고, 함부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일하는 농민이 존재한다.

UN 농민권리 선언 2조

“국가는 모든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즉각적으 로 보장할 수 없는 본 선언문의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02

열린마당

충남 농업농촌의 지금과 미래의 농촌

복권승 | 충남생태문화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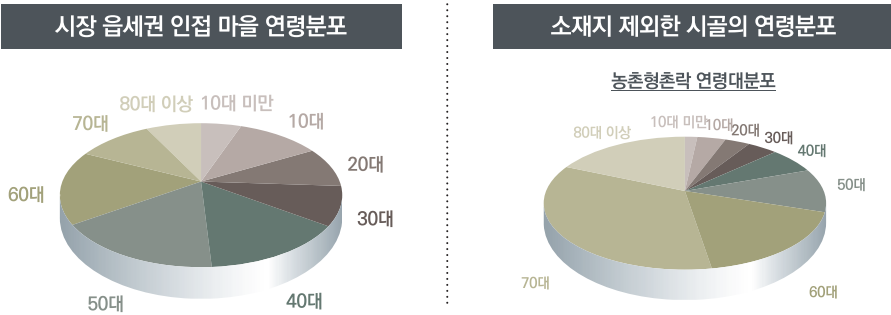
1. 여는 글

충남지역은 동북부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업기반으로 살림을 하는 곳이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으로 대변되는 북부권의 도시들 또한 농업과 농촌사회에 생산기반을 둔 주민들이 많은은 물론이다. 물론 21세기 산업사회의 발달이 극에 달한 지금 종사자의 비율이나 생산부가가치 등을 따진다면 충남지역에서 농업의 비중은 과거만큼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과 국토의 생산적인 이용, 그리고 식량주권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남의 농업과 그 농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현 상황과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 지금 농촌의 현실

1) 읍면소재지와 일반마을의 차이가 극명하다.

| 2016년 9월경 조사해 그래프화 한 면소재지와 그렇지 않은 마을의 비교 |



충남 청양군의 정산면은 인구 4천 명이 채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시골의 면단위이지만 현재까지 5일 마다 장이 서는 지역이다. 더불어 상가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전형적인 시골 면의 중심지이다.

옆 표에서 보듯 읍세권(서정리와 역촌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행정리의 인구분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이상 시골지역을 하나의 표준모델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직 소재지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종된 상태이다. 당연히 정책적으로 달리 접근해야 하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마을회관의 기능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

동절기 마을회관에 난방유가 공급되고, 여름철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마을주민들의 상주공간화 되어가고 있었다. 최근 3~4년 사이 무더위쉼터까지 마련되면서 여름철 정자나무에 앉아계시던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마을회관에서 흡수했다. 이제는 마을에서 상시 모임이 이뤄지는 공동체 소통의 장이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마을회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히트송이 나오기도 했다.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이라는 곡이다. 이제 어르신들의 네트워크도 나름의 유행을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또래집단의 지지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면 이제는 이러한 공간 공유를 통한 소통으로 다양한 생활공동체이자 문화공동체로서 마을의 기능이 변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공동생활형태의 종일 거주공간으로서 마을회관이 탈바꿈하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3) 마을에서 청년조직이 사라지고 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농업농촌마을에서 청년회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아래의 도표는 2016년 9월에 문화권을 공유하는 정산면 중심의 치성천 일대 한 13개 행정리의 공동체 구성에 대한 표이다. 주황색 음영으로 표시된 곳들이 과거 의례히 있었던 청년회가 사라진 곳들이고, 사라진 해는 모두 10년을 넘지 않는 최근의 일로 조사되었다.

2016년 9월 조사 치성천(정산면 중심)일대 마을들의 공동체 현황							조사자: 복권승
순번	구분	마을대동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회	취미동아리
1	광생리	1		1	1	1	
2	덕성1리	1	1	1	1	1	
3	덕성2리	1		1	1	1	
4	백곡1리	1		1	1	1	
5	백곡2리	1		1	1	1	
6	서정1리	1	1	1	1	1	
7	서정2리	1	1	1	1	1	
8	송학리	1		1	1	1	1
9	역촌1리	1	1	1	1	1	2
10	역촌2리	1	1	1	1	1	3
11	용두리	1	1	1	1	1	
12	해남리	3		1	1		1
13	대평1리	1		1	1	1	2
14	대평2리	2	1	1	1	1	

갈색으로 공란 표시된 곳도 2006년까지는 모두 청년회가 존재하던 곳이었다.

4) 현재의 귀농귀촌현상으로 농촌사회 고령화를 방어할 수 없다.

2017년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시민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7.7%였다. 이는 당분간 농업사회로의 도시민들의 이주는 지속될 것이라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보다. 그런데 이 또한 두 가지의 맹점이 있다. 은퇴 이후를 꿈꾸는 중장년층 이상이 대부분이고, 이들 가운데에 어린 시절 농촌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욕구가 귀농귀촌의 주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촌전문가들은 지금의 귀농귀촌현상은 ‘당분간’이라는 일시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귀농귀촌 붐으로는 고령화를 호전시키기 어렵다. 마을 가구 수의 30%가량이 귀촌가구로 귀촌인 비율이 높은 청양 대박리의 경우 거주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이웃한 다른 마을들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 고령에 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이다.

5) 물 사용이 많은 시설형 농축산이 증가하고 있다.

용수의 부족이 심각하다. 오늘날처럼 관개시설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농촌현장에서는 실제로 용수부족을 많이 겪는다. 이유는 최근 물소비가 많은 농업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첫째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재배와 수막재배로 온실의 온도를 지키는 시설, 둘째 기본적으로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균류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사 환경, 셋째 가축을 기르는 축산단지까지 모두가 전통농업 대비 물을 많이 소비하는 농업이다. 수막재배의 폐해가 지하수 고갈로 이어지자 최근에는 지하수를 이용 후에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는 순환형 용수사용기술도 소개되고 있다. 이 경우 용수의 이용에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는 부분이 중요하다. 고기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과 채식주의가 유행이라 하여도 육류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농지를 경제성이 좋은 축사로 바꾸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3. 농업 농촌의 미래

1) 마을자치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역할의 분산

다양한 마을사업으로 인해 영농회장을 겸한 마을 이장과 몇몇 리더들에게 마을 일이 집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래에는 마을이 갖는 법적지위와 실체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계에 이르는 마을들은 면단위 자치구조의 서비스체계와 결합하는 경우도 나타나리라 본다. 마을총회 또는 주민총회와 마을실무위원회(가칭)수준에서 합의와 분담을 통해 과정이 투명하고 결과가 민주적인 마을 일들이 이뤄지리라 기대해 본다.



| 2016년경 구상해 보았던 마을 일 분담구조의 예 |

마을자치회 고유역할				
마을자치	경제기반	교육문화	복지의료	사실환경
마을법인 운영 마을총회 운영 마을업무 총괄 청년파견 관리 행정기간과 소통 문서 및 자료 관리	농기계수리센터, 위탁영농조합, 체험마을사업 등 마을특화사업 택배 및 자재운송 미니버스 운용 농산물 유통 연계	문해교실, 도서관 지역학습센터 마을문화제 순찰 생신잔치-이벤트 마을음악회, 영화제, 문화행사 교육기관 연계 마을학교 교사	공동생활관 및 취사, 요양 운영 어르신 문안 및 조식 지원사업 부녀회 연계사업 보건진료소 방문간호 재가복지 연계	빈집-요지 위탁 영농쓰레기관리 수로, 도랑 관리 생활 분리수거 마을환경 순찰 마을산불감시 마을가상대운영 마을 에너지 관리
마을자치위원장	경제교통위원장	교육문화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공간환경위원장
마을공동대표 수평 합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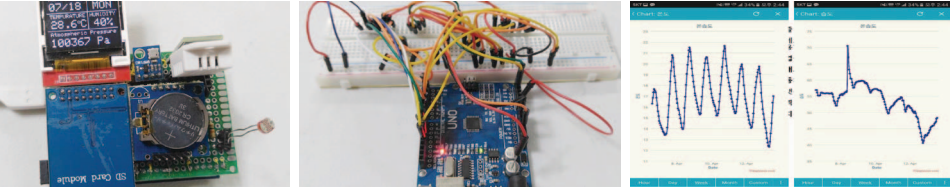
2) 기업농과 강소농에 이어 게으른 농부가 많은 미래의 농촌

기업농축산의 규모로 도시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분야와 강소농을 중심으로 한 전업농업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박한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워라벨’형 농사형태도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아닌 농사를 통한 파트타임농업과 시골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일자리를 포함한 소소한 일거리들로 겸업하는 라이프사이클로도 미래 농촌사회의 생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소득원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창작활동과 디지털결과물과 온라인판매 등 택배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만들어내고, 부수적으로 농사활동이 행복추구권이나 자급자족적 먹거리 생산 활동 정도로 정의되는 농부들의 출현했으면 한다.

3) 스마트팜의 대두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도 많은 농장들이 스마트팜이라는 테마로 많은 돈과 지원을 받아 ICT화하고 있다. 무척 복잡하고 힘든 기술로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아두이노, 파이썬, 라즈베리 등 다양한 오픈소스와 프로세스킷 그리고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적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의 저렴한 D.I.Y 스마트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에 쉽고 가벼운 스마트팜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이 직접 만든 아두이노보드 이용 현장 온습도 모니터장비와 송출 결과 화면 |



제작: 노진호(협동조합 품), 비용: 14만 원

가치체계가 기존의 전통공동체와 많이 다른 도시화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농업농촌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귀농귀촌현상과 더불어 농촌사회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에서의 기술과 경영, 그리고 공동체적 의사결정과 생활 속에서의 합리적인 사고와 여가를 즐기는 농민들이 출현한다. 미래사회 충남의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도시화 이후 세대들에게 농업농촌의 문턱을 낮추고 상호 소통으로 만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의 비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

01

해외리포트

방조제로 갇힌 서해안 하구의 복원 움직임,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에서 살펴본다

윤종주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간척의 나라’에서 ‘간척을 반성하는 나라’로의 변모, 네덜란드... 우리는?

최근 ‘역간척’으로 불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에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부남호를 중심으로 하구복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식량자원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지가 더 필요했고, 간척사업을 통해 형성된 농경지에서 쌀을 생산하여 국민의 배고픔을 해소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더이상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며, 쌀소비가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쌀로 인한 농경지의 농업적 이용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및 강수 패턴의 변화로 봄가을의 가뭄이 반복되어, 간척지 주변 농경지에 염해 피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바다에 인접한 간척농지의 지하수를 통한 염분이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바닷물을 막아 조성된 하굿둑 내의 호소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 하구호에서 수질악화가 지속되어, 농업용수로 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오염도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간척을 통해 얻어진 매립지의 이용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척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1900년대 초반부터 홍수와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된 나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담수호의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며, 재해예방과 수질복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기술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많이 본받아 이루어진 것들이다. 간척에 이어 간척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의 연안하구 복원 및 역간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_ 해수유통 터널 운영 사례
2_ 휘어스호 내부의 내륙마리나향 전경
3_ 통선문 구조 및 운영 사례



해수유통을 통해 되살아난 휘어스호, 델타프로젝트를 바꾸다

네덜란드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생태복원의 사례로는 젤란드주 휘어스호의 잔트크리크담이 대표적이다. 휘어스호의 해수유통은 대표적인 간척프로그램인 ‘델타프로젝트’로 건설된 네덜란드 내 방조제 관리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젤란드주의 호수인 휘어스호는 부남호(서산B지구)의 약 1.5배 정도 큰 규모의 호수이다. 두 섬 사이의 좁은 해로 양끝을堵으로 막아 만든 인공호이다. 휘어스호의 동측 끝을 막고 있는 잔트크리크담은 1961년 ‘델타프로젝트’ 추진에 의해 건설되었다.

인공호 조성을 통해 보트 정박이 가능한 관광호수로 만들었지만 정작 수질악화가 진행되어 관광적인 이용 및 농업적 이용이 줄어들었다. 수질관리 담당자에 따르면 해수유통 이전 수질 악화가 지속되어 녹조가 심하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수유통터널을 통한 잔트크리크담의 해수유통이 시작되자 수질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태관광도시가 되었다. 물길이 차단된지 43년 만에 재개된 해수유통은 네덜란드의 폐쇄형 하굿둑을 해수유통한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현재는 수질개선에 따른 생물다양성이 높아졌으며, 휘어스호 주변 마리나향에는 다양한 나라의 국기를 단 요트들이 빼곡하게 정박해 있을 정도로 휴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낙후한 작은 어촌마을에서 생태관광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렇듯 물은 흘러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가 증명된 셈인데, 갇힌하구의 하구환경을 복원시켜야 한다면 해수유통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볼케락호의 해수유통 준비와 사회적 합의 사례

네덜란드의 볼락호는 담수호로서 유지되고 있다. 필립스뎀으로 차단되어 있는 인접한 그레블링겐호는 부분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터스켈드호는 완전 해수호 상태이다. 볼케락호는 주변 농업수로 활용이 지속되고 있어 담수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해수유통을 준비 중에 있다. 바로 충남도의 부남호 등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주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강 상류에 새로운 수로(대체 수원 마련)를 건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며,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해수유통 결정을 2030년으로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하구복원 준비와 사회적 합의 노력은 성공적인 하구복원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4_ 오스터스켈드 댐(하굿둑)을 통한 해수유통
5_ 하굿둑 내측에 위치한 내륙 마리나 진경
6_ 하구복원으로 돌아온 그레블링겐호 물범

해수유통보다 적극적인 ‘역간척’도 동시에 진행, 워터던(Waterdune) 사업

네덜란드는 해수유통보다 적극적인 역간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오스터스켈드 하굿둑과 제방 주변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간척지를 정부가 매입해 습지로 복원하는 것이다. 간척지의 염분농도가 높아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다시 습지로 복원해 철새도래지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바로 간척지의 일부 제방을 헐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는 ‘워터던(Waterdunen)’사업이다. 기존에 설치된 제방을 헐어서 해수를 간척지로 유입시켜 습지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역간척의 대표적 사례이며, 네덜란드에서



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농지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지금은 워터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갯벌복원을 통한 생태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훨씬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로부터 배운 간척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간척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새만금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간척의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물과 자연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실수했던 부분을 발빠르게 고쳐나가고 있다. MB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4대강 사업만 보더라도 그 결과는 자명하다. 복원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아,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하구복원 성공사례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거울삼아 한국식 지역 상황에 맞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구를 완전히 막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졌다. 하구의 담수호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데,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복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조금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남호 하구복원의 효과는 현재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의 가치에 비해 그 미래가치가 100배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남호 일대의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양생태도시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 등 습지복원 공간의 조성이 기대된다. 이는 천수만의 해양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서해안권 해양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남호가 성공적인 하구복원 사례지로 국내외에 알려질 그 날을 기대해본다.

01

상생과협력

집단지성의 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 신성대학교 교수/서산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I. 공론화위원회 대두배경

서산시에서는 양대동매립장의 매립가능량이 부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소각’으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국비가 50% 지원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해 11월 말 인근 당진시와 광역화기본계획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소각시설 입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결과 최종적으로 3개소(갈산동 1곳, 양대동 2곳)가 후보지로 확정되어 2015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11월에는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이에 주민 11,400명이 ‘주민 홍보 및 원점에서 다시 후모지를 공모할 필요성을 제기’하자 12월 말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투표결과 미선정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2016년 1월 소각시설 입지선정과 관련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며 5월 중순 입지후보지로 4개소(갈산동 1곳, 양대동 2곳, 대죽리 1곳)가 선정되었다. 이에 9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3월 말까지 4차례 회의(1차회의: 입지타당성 조사방법 결정, 2차회의: 입지타당성 배점 결정, 3차회의: 입지타당성조사 세부평가 항목 25개 결정, 4차회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의결 결정)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 착수하였다. 이어 4월에는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6,335명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였으나 5월 실시된 5차회의에서 최적후보지로 양대동 827, 828을 선정하였다. 6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실시한 후 9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시작하여 12월 협의를 완료하였다. 12월 말 입지선정위원회 6차회의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양대동 827, 828을 최종입지로 선정하고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이로써 2012년 시작된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5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착수되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가 공고되었다. 하지만 이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계속하여 민선7기 시장선거에서 양대동 소각장문제가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지역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 그 후 선거에서 당선된 맹정호시장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숙의를 거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II. 공론화위원회 운영결과

1.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서산시는 2018년 10월 25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의회,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6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공론화위원들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양대동 생활쓰레기 소각장) 계속 추진 여부 공론화’를 주관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론화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민주성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16명 모두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보니 한번 회의를 하면 보통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임시 회의를 포함 총 10회의 회의에서 각자 치열하게 찬반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주장하다보니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실제 시민참여단 운영이나 현장답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모두 공론화위원들이 사전에 토론을 벌였던 문제라 대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사안이 갖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았다. 이 점이 위원들 서로를 신뢰하게 하였고 역사사지할 수 있는 아량도 배우게 하였다.



2.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론화에 대한 결정은 결국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안심번호는 선거목적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유선전화를 통해서 1,004명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과 관련 ‘반대한다’(34.8%)가 ‘찬성한다’(21.5%)보다 높게 나왔으나 ‘판단유보’(26.7%)와 ‘잘 모르겠다’(17%)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



키기 때문’이라는 응답(68.7%)이 가장 많았고 ‘서산시 쓰레기가 아닌 당진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2.2%)도 제법 있었다. 찬성 이유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62.3%)이 가장 많았고 ‘오염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기 때문’(14.6%), ‘매각보다는 소각이 현재기술로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12.5%)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참여의향을 묻고 찬성, 반대, 중립의사를 표명한 각 35명 총 10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1차토론회, 현장답사, 2차토론회로 진행된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최종투표는 1, 2차 토론회에 모두 참여한 시민만 참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관심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공개적으로 충족시켜 주었다. 특별한 기억이 남는 것은 시민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쟁점토론 진행순서와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 인사들과 2시간 가까이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최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쟁점토론이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양측의 기싸움이 대단하였다.

3.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두 번 투표한 후 값이 일치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즉 ‘계속추진(찬성)’을 1번으로 하고 ‘추진중단(반대)’을 2번으로 한 투표값과 ‘추진중단(반대)’을 1번으로 하고 ‘계속추진(찬성)’을 2번으로 한 투표값이 일치해야 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누군가에 의한 투표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실시하였는데 막상 4번째(총 8번 투표) 가서야 투표값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공정성시비가 차단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최종결과는 ‘계속추진(찬성)’ 54.2615%, ‘추진중단(반대)’ 45.7385%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들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계속추진(찬성)’으로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나 반대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도 당부하였다.

Ⅲ. 시사점

2018년 11월 20일 시작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2019년 2월 21일 마무리되었다.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후 상호 찬반의견도 개진하고 각자 생각을 정리한 후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참여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참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본인은 그 결과를 보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본인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이 본인과 얼마나 다른지 느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과 반목을 제3자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방식은 사회 내 민감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유효한 메커니즘이다. 향후 공론화방식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현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신뢰하고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가출신 시장의 대담한 결정에 따라 실험적으로 운영된 서산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얻은 시사점이다.

01

인권 A to Z

인권이란?

이민정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에서는 “인권 A to Z” 코너를 통해 인권에 관한 A부터 Z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인권관련 정보, 근래 이슈화되고 있는 인권사례, 주목받지 못해온 인권분야 등,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여 충남도민의 인권감수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권’의 유래

우리들은 일상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다양한 상황에서 보고 듣고 지냅니다. “인권을 존중합시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학생인권을 지키자” 등등, 인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권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그때그때의 분위기, 감정으로 ‘인권’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태어난 개념입니다. 인간은 개개인 모두가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핍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에 이런 생각들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하고도 존엄한 인간에 식민지 사람들이나 유색인종들, 노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침략국의 국민에게 침략받은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도 성인남성과 같은 인권을 갖는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도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동등한 인권”의 시작점

인권의 의미가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어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존중받고 지켜져야한다”라고 정의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이 탄생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당시의 회원국이 찬성하여 만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할 공통의 기준으로서”의 인권의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前文)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과 평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원국은 UN과 협력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달성할 것을 규약했습니다. 그 나라 및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인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공통적 기준”으로서의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지금 시대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인권규약과 인권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인종차별 철폐조약, 고문등 금지조약, 아동권리조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계의 “공통적 기준”인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타고 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의 국제기준에서 인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제는 모든 사람은 단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의 특징이 나옵니다.

① 인권의 보편성, 평등성

인권은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동등하게 갖습니다. 인권은 평등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빈부, 사회적 지위,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도 관계 없습니다. 인종, 성별, 국적, 신앙,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② 인권의 불가침성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국가와 타인에 의해 빼앗기거나 침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이상·양심·종교를 믿을 자유 등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③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인권은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우열을 가리거나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상호보완되어 있기에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혐의로 체포되었다. 자백을 강요당해 할 수 없이 조서에 서명을 했다.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나중에 이것이 거짓자백임이 밝혀졌지만,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에 나가서도 취직이 어렵다.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 부모는 아이가 병에 걸렸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다. 아이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해, 장래에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림출처: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148764>)

중앙일보(<https://news.v.daum.net/v/20190122201450393>)

인권에는 자유롭게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그 생각을 표현할 권리, 함부로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을 권리처럼, 국가의 간섭에서 개인을 지킬 권리(“자유권”)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처럼, 국가와 행정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할 권리(“사회권”)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인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권에 차이를 두면 인간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방식,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권

인권은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져야 비로소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풍족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권은 사람이 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려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주위의 무리한 기대와 강요로 인해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소중하게 품어온 목표실현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법에서 지키는 인권

인권은 막연한 개념이 아닌, 법에서 지키는 개별권리(살 권리, 생각할 자유,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의 집합입니다. 인권을 지키고 인권을 위한 법률을 만들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도덕과 윤리와는 다소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 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경우(“인권침해”), 인권회복과 손해보상을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인권존중 보장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인권행사에 따른 책임

인권을 주장하고 활용할 때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책임이 뒤따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할” 책임(“연대”)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행사할 때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지켜야 할 필요 최저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인권은 무책임한 자기주장과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에는 30개의 조문이 있는데 지난 70년간 내용이 자세해지고 회원국들이 지켜야할 의무로
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인권을 소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세계
인권선언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자유평등	생존, 자유, 신체의 안전	비인도적 대우 또는 형벌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재판소의 공정한 심리	사생활, 명예, 신용의 보호
박해로부터의 피난	기본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의견, 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	재산권
생활 보장	문화권	사회에 대한 의무
차별대우 금지	노예 금지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인정
체포, 구금, 추방 제한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이동과 거주 의 자유
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보장	혼인과 가정	휴식, 여가
교육권	인간을 지키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의 확보	권리와 자유에 대한 파괴적 활동 금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근년 우리사회에는 이주자여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그동안 소수라는 이유로 우리가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아 차별 받아오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권문제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
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도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갈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인노동자 중에는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
은 다소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수의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2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제정 71주년
을 맞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조항 측면에서는 충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문제와 차별은 다수자에게
는 소수자가 왜 힘든지 잘 이해가 안가는 성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
여 왜 힘든지,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림출처: 한국인권재단(http://humanrights.or.kr/Insadong_column/36800)

01

오피니언1

충남의 대표 쌀을 만들자

연승우 |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맛이 유행이다. 서너 해 전부터 방송이나 SNS에서 맛집에 대한 소개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도 맛에 관심이 커졌다. 우리 농업에서도 최근 트렌드는 맛이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맛을 선호함에 따라 다수확 중심의 농산물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맛있는 품종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농산물의 맛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사과, 배, 딸기, 참외 등의 작물들은 당도를 맛의 기준으로 정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트렌드는 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한층 강화된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했다. 그동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미검사’ 표기하거나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쌀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등급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단백질 함량, 품종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맛있는 쌀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맛있는 쌀은 결국 밥맛이 좋다는 뜻이다. 밥맛을 결정하는 첫 번째가 품종이고 다음으로는 찰기, 단백질 함량 등이다. 흔히 밥맛이 좋다고 말하는 경기도 이천쌀은 충청 품종이다. 철원쌀은 오래 품종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쌀들은 단일품종이다.

충청남도는 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다. 2018년 통계청의 경지면적 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총 경작지는 21만2,000ha이고 이 중 논이 14만7,000ha이다. 논 경작지는 전남 14만7,000ha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다. 특히, 충남은 다른 도에 비해 전체 경작지 중 논의 비율이 가장 높다.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쌀농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쌀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충남 농업소득 향상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쌀 소비의 트렌드는 맛있고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품종이다. 그렇다면 충남에서 배되는 쌀품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충남의 쌀 대표 브랜드 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삼광이다. 충남의 14개 대표 브랜드에서 9개 브랜드가 삼광 단일품종이다.

삼광은 농촌진흥청에서 1999년 개발을 시작해 2003년 12월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으로 중만생종이며 중부 평야지에서 재배하기 적합하다.

| 충청남도 쌀 대표 브랜드 현황 |

시군명	브랜드명	브랜드 사용자	주 품종	개발년도
광역브랜드	청풍명월골드	서천통합 RPC 외 7	삼광	2012
광역브랜드	청풍명월	공주통합 RPC 외 19	혼합	2000
천안시	천안흥타령 쌀	천안통합 RPC 외 1개소	추청	2004
공주시	고맛나루쌀	공주통합 RPC	삼광	2010
보령시	만세보령쌀	보령통합 RPC	삼광	1999
아산시	아산맑은쌀	둔포농협 RPC 외 2개소	삼광	2002
서산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동부연합 RPC 외 3개소	삼광	2003
논산시	에스민	연무농협 RPC 외 1개업체	삼광	2008
당진시	해나루쌀	당진통합 외 5개소	삼광	2003
금산군	금산비단뽕	신금산미곡종합처리장	혼합	2002
부여군	굿뜨래쌀(숯쌀)	부여군통합RPC	혼합	2007
서천군	서래야	서천통합 RPC 외 1	삼광	2006
홍성군	내포천애	갈산농협RPC 외 2	삼광, 혼합	2007
예산군	미황	예산통합RPC	삼광	2008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삼광의 단백질 함량은 5.7%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아밀로스 함량은 18.3%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와 맞아 떨어진다. 아밀로스 함량이 낮을수록 찰기가 많은데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밀로스 함량이 17~20%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쌀 주산지 중의 하나인 충남에서 대표 품종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광은 이미 충남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충남의 9개 시군에서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많이 알려진 쌀이다. 그만큼 밥맛이 좋다는 방증이다. 부드럽고 찰기가 적당한 청년층이 좋아할 만한 쌀이다. 여기에 단일품종의 쌀이 소비지에서는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형할인점 쌀 판매 매대에 가면 단일품종의 쌀들이 혼합품종의 쌀보다 10~20%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충남의 학교급식용 쌀, 그리고 충남도청 등 각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먼저 삼광 품종만 사용한다면 로컬푸드와 함께 대표 쌀 소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충남도 차원에서 홍보한다면 향후 철원 오대쌀, 이천쌀 못지않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맛있는 충남의 대표 쌀이 필요한 시점이다.

02

오피니언2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원일 | 세종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중앙정부의 집권체제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주적 결정권 행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분권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지방자치제 도입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한동호·오시환, 2010).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권 실현과 관련된 현상 중 하나로 장학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등의 출자·출연기관의 성장 속에(김형진·한인섭, 2015), 지역복지재단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 구축의 요구와 전달체계의 분절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대안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한인섭·김정렬, 2014; 이지숙, 2016; 원일 외, 2017). 충남 지역 역시 서산시복지재단(2011), 당진시복지재단(2012),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2013), 천안시복지재단(2015) 등의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 등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지역복지재단의 역할에 관하여 정무성(2016)은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프로그램(서비스) 매뉴얼 개발, 기초자료 수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복지기관 및 시설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개발하고 우수시설 지원과 시설개보수 지원의 역할**이다. **셋째,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한 나눔문화 활동이 정착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나눔문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재단과 지역복지재단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이며, 우리나라의 특징인 공공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함에 따른 자원 및 조직 성격 등의 상이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복지재단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설공영, 공공에서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설민영, 민간에서 설립·운영하는 민설민영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오단이·정무성, 2015; 원일 외, 2017). 관 주도형인 공설공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지역복지재단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 증진의 목적에 적합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설립 및 운영주체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사업운영에 작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공공영역의 대변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형에 해당하는 공설민영은 공설공영과 이후에 진출할 민설민영의 절충적 형태로, 일정 부분 지방정부와는 분리된 체계로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과 협동운영체제 모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의 유연성 측면에서 민설민영에 비해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민간주도형인 민설민영은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하고 자율성에 근거한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불안정의 이유로 공설공영에 비해 조직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¹⁾.

지역복지재단의 현실을 살펴보면,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모금 및 배분활동’, 복지서비스의 체계화와 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마을 단위의 주민육구조사와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의 3대 사업을 위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지숙, 2016; 원일 외, 2017; 손선옥 외, 2018²⁾). 특히 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지역복지재단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원일 외, 2016), ‘복지시설 운영’이 가장 대표적인 설립 사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방분권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지역복지재단은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의 지방자치 강조 흐름에 맞물려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금 및 배분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지역 내 복지기관들의 박탈감 문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비영리법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단위 정책반영의 한계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공설공영임에도 민간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민과 관 사이의 정체성 혼돈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요구된다.

1)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 중 시흥시1%복지재단은 시에서 설립하고 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설민영과 민설민영의 특성을 공유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사업활동 이외에 ‘복합기능중심’의 4대 사업활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복합기능중심’의 경우 3대 사업활동의 중첩을 통해 가능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문헌

- 김형진·한인섭. 20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성장실태와 관리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 24(4). 67-98
- 손선옥·김소영·노연희. 2018.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70(2). 35-59
- 오단이·정무성. 201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조직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189-212
- 원일·오단이·이민영·송혁. 2017. 지방분권화시대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 김포복지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5-34
- 원일·이민영·김은숙. 2016.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김포복지재단-. 김포복지재단
- 이지숙. 2016. 지역복지재단의 실태 및 방향성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3-17
- 정무성. 2016.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 한동호·오시환. 2010.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 국가정책연구. 24(2). 81-108
- 한인섭·김정렬. 2014. 지역복지재단의 운영실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3). 125-148

NEWS

VOL.88
충남 소식

2040년 ‘충남의 미래상’ 그린다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1

충남도가 2040년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린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분권과 참여 등 환경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 20년 간 충남의 교통과 물류, 환경, 문화, 관광, 산업, 복 지, 주택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 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시·군 기획감사실장,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관 한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 하고, 국토 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 지역의 경 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 계획을 담는다.

도 종합계획은 또 시·군 종합계획 등 하위 계획의 방향과 지침이 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지 역계획 만료 시기(2020년)가 도래하고, 새로운 메가 트렌드 등장, 국 토 정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 기 위해 장·단기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민 복 리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계획에 담게 될 주요 내용은 △지역 현황·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 여 건 변화 전망 △지역 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 공간 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 △지역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 △토지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등 이다.

또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 환경 개선 △문 화·관광 기반 조성 △재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 관리 △범죄 예방 △지 역산업 발전 및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도 포 함한다.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는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10개 분과 82명으로 구성하는 추진기획단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분과별로 도 정책자문단과 충남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다.

도는 이와 함께 대학과 국책연구원 관계자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자문을 받는다.

도는 특히 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 종합계획에 대한 공 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50~100명으로 구성하게 될 도민참여단은 2040년 미래상 및 부문별 이슈 도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이밖에 지역의 전문가와 NGO 관계자 등으로 혁신가 플랫폼도 구축,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획과제 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도 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 한 계획이자,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별·부문별 계획, 하위 계획 의 지침 제공 계획”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충남도의 비전으 로 제시한 ‘환경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 남’이라는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해 2040년 충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체화 하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도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같은 해 6월 4대 권역 별 공청화와 8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중앙 국토정책위원 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도 종합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 양승조 지사, 공주시 찾아 민선7기 2년차 비전 및 현안 공유

#2

시민 선정한 현안 청취… 유무형 역사 문화 관광자원 강화 협약

양승조 충남지사가 공주시를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민선7기 2년 차 공주시 시군 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김정섭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양 지사는 이날 첫 행선지로 탄천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장을 찾아 수자 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영농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공주 아트센터 고마’로 자리를 옮긴 양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도정 비전 및 방향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현안 사항을 청취 그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들은 △KTX 공주역 활성화 △공주 교량 자살방지 방안 △백 제문화제 통합 개최 △여성친화도시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학교급식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열 띤 토의를 벌였다.

양 지사는 김 시장과의 정책협약을 통해서도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 권 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국립국악원分院(국립충청국악원) 유치 △백제문화제 활성화 △백제문화 스타케이션(Baekje+Star+Location) △충청감 영·공주목 활성화 등 유·무형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강화하고, 발굴하 는 것이 핵심이다.

양 지사는 “공주시는 전통성과 역사성 면에서 타 도시보다 월등한 강 점을 지니고 있다”며 “공산성관 송산리고분군에 이어 마곡사가 세계유 산으로 등재,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의 뿌리인 백제 역 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로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때까지 도의 행정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역사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감영터와 공 주목 관아터 등의 복원을 통해 도 수부도시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 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진력해 나가겠다”며 “공주가 세계적인 역사문 화 도시이자, 중부권 문화수도로 발전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 했다.



NEWS

VOL.88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태풍 ‘링링’ 피해지원 성금 전달

#1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태안군에 태풍 ‘링링’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 238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충남연구원 전 직원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현장중심연구는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충남연구원이 도민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일본수출규제 대응 TF’, 충남도 경제위기극복 지원한다.

#2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수출규제 대응 TF’팀(팀장 이인배 기획경영실장)을 구성하고, 충남도민 경제피해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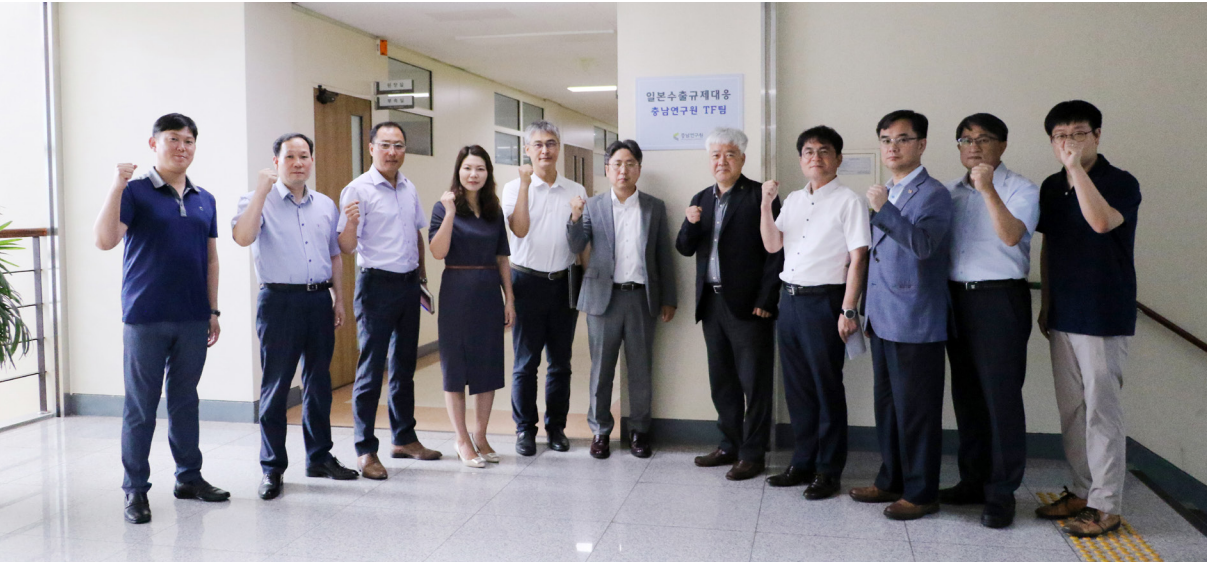
이는 충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도의 경제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충남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초부터 도지사를 주재로 도, 시·군 및 경제단체장,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TF

팀 구성으로 현안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분석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연구실 및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와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가 협력하여 경제 효과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과 경제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우리는 위기를 통해 하나가 되고, 더욱 발전하는 역사를 지닌 나라”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위해 충남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해요, 충남’에 답함 (나태주 시인님께)

이민우 | 충남연구원

풀꽃 시인의 마음 속에
여전히 푸르른 청년이 있다
맑은 눈빛과 단정한 말씨가
여전히 마음 속에 불을 지핀다

시인의 시 한 줄에
그가 사랑하는 충남이 자라나고
그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커가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시인의 시 한 줄에
가슴이 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위로 한 모금도 얻어먹었다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아주는
시인의 따스한 시 한 줄이
여기 우리를 늘상 보듬어주고 있다

충남의 사계 - 가을

가을

가을은
은행털이범들의 낙원
올 가을엔 너로 정했어!

보령 청라은행마을

作. 충남연구원 정봉희

